



아랍 혁명  
혁명적 상황은  
어디로 나갈 것인가  
▶ 12 면

희망버스 중간 평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다  
▶ 8 면

비정규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하여  
▶ 9 면

10·26 재보선  
이명박에게 패배를  
▶ 6~7 면

세계경제 위기  
유로존 위기와  
중국의 불안정  
▶ 10 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재현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2호)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777-021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93

Left21.com

제67호 | 2011년 10월 22일 ~ 11월 4일 | 값 1,800원

리포트21



10월 15일 전세계적으로 벌어진 '99퍼센트  
행동' - (위쪽)10만 명이 결집한 미  
국, (오른쪽위)1백만 명이 모인 스  
페인, (오른쪽)20만 명이  
모인 이탈리아

82개국 1천5백 개  
도시에서 1백만 명이 외치다

# “우리는 99퍼센트다. 다 함께 저항하자”

» 관련 기사 3~5면

10월 15일은 역사에 남을 날이 됐다. 이날 무려 82개 국가 1천5백여 개 도시에서 1백만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현 경제 시스템이 잘못됐고 그것을 바꾸고 싶다는 공통된 염원 아래 단결했다.

9월 중순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를 점거하라’는 운동이 이날 국제 행동에 큰 영감을 줬다. ‘우리가 99퍼센트’라는 월가 점거 시위의 구호는 전 세계적 유행이 됐다.

월가 시위의 배경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

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미국 등 각국 정부들은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서 위기에 빠진 은행·기업·투기꾼을 구해 줬다.

당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살던 집에서 쫓겨났으며, 복지는 삭감됐다. 이명박 정부도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한편, 용산 철거민과 쌍용차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경제 위기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최근 유로존의 재정·금융 위기와 세

계경제의 더블딥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점에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월가를 점거한 젊은이들이 ‘왜 99퍼센트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1퍼센트의 부자들만 도와야 하느냐’ 하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주의를 제거하자**

월가 점거 운동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된 유럽 노동자 파업과 아랍 혁명 등 국제적 반란에서 불

씨를 이어 받은 것이다.

‘아랍의 봄’에서 ‘미국의 가을’로 이어진 것이다.

10월 15일 한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일본에서 캐나다까지, 타이완에서 아프리카까지, 사람들은 저항했다.

로마에서는 20만 명이 참가한 격렬한 초대형 시위가 열렸고, 베를린에서는 4만여 명이 모여서 ‘자본주의를 제거하자’ 하고 외쳤다.

» 2면으로 이어짐

리포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들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독재에 항거하여 교도소에 갇혔던 운동가”

이명박에 대한 오바마의 어색하기 짝이 없는 설명

“우리 나라는 시끄러운 나라”  
미국 가서 푸념하는 이명박, 누구 때문이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회의식 개혁이 더욱 절실하다.”  
영화 도가니를 본 이명박, 누구 의식이 문제지?

“설마 또 (대통령이) 산에서 떨어져 죽는 일은 없겠지요?”  
한 내국동 주민의 걱정

“나는 술 마시면 말을 더 잘한다.”  
폭탄주 마시고 뒤통이로 TV 토론에 나온 신지호

“시간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 제일 우수하며”  
나경원, 참을 수 없는 줄 세우기 본능

“다이어 반지는 나 후보의 시어머니가 23년 전에 준 것”  
숫자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23년 전 가격으로 재산공개한 나경원

“한국의 좌파 단체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초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시위를 주도해 온 세계 최강의 시위세력”  
(조선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은 부패와 비리가 없다. … 이것이 자랑이었는데”  
이재오의 한탄, 지난 4년간 우주에 있었나?

“시궁창물이 수돗물에게 말했다. ‘넌 끓이지 않고는 마실 수 없는 물이야.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 좀 하자.’ 수돗물이 어이 없어서 대꾸를 하지 않자 시궁창물이 말했다. ‘비겁한 놈!’”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행태를 비꼰 한 네티즌

“예수님이 아권단일후보로 나올 때 한나라당의 반응 — ‘친아버지의 정체를 밝혀라’”  
한 네티즌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각주 금요일 저녁 7~8시 (다음화는 11월 4일)

강남역 6번 출구 ABC뉴욕제과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해화역 4번 출구  
종각역 4번 출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너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앞), 풀무집(성균관대앞), 아음책방(대원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 제국주의 경쟁의 격화와 한미FTA

이명박과 오바마는 ‘한미FTA가 기존의 군사·안보 동맹에 경제 동맹을 더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한미FTA는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한 협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시종일관 ‘한미FTA를 통해서 한미 경제동맹과 안보동맹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가 연평도 때문에 한미FTA에서 놀라운 양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7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톰 도닐런은 “세계에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은 우리의 경제력에 직결되며, 3개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승인은 국제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은 한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었고 최대 교역상대였으나 2003년 이래 중국과 일본에 밀렸고 올해 7월 1일 한·EU FTA 잠정발효 이후에는 EU에도 추월당했다” 하며 한미FTA를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등 다른 제국주의 열강과 경쟁하는 데 지렛대로 쓰겠다는 의도를 드러



“뺏속까지 친미” 이 순간 이명박과 오바마의 머릿속에는 오직 기업 아윤과 군사 패권만이 가득했을 것이다.

냈다. 이런 정책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 미국은 FTA를 추진함에 있어 외교·안보적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왔다. 미국 최초의 양자 간 FTA인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중동정책을 반영

한 결과이다.”(<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미국의 안보전략문서는 “오늘날 무역협정은 냉전시대 안보조약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즉 미국이 추진하는 ‘전략적 유연성’, 군사력 증강과 FTA가

〈레프트21〉 2심 2차 재판

## “2심 재판에서도 굳건하게 투쟁하겠습니다”

김지태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

2심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련회에서 많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고압게도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는 서명을 금지해 줬다.

10월 15일 ‘Occupy 서울’ 집회에서도 우리는 리플릿을 나눠 주고 2심 재판을 위한 모금을 받았다. 1퍼센트를 대변하는 정부가 99퍼센트를 대변하는 신문을 탄압한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미셀 이주노조 위원장 등 집회에 참가한 주요 진보 인사들도 탄원서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진보적 인사 80여 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검찰은 또다시 억지스런 주장을 펼치며,



검찰은 억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우리를 처벌하려 한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관련 증인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우리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들은 하나같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판매 사실을 증언했다. 또 사건 현장에서 우리

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마저 집회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도 이런 정황을 아예 무시할 수 없었던지 <레프트21>을 무료 유인물로 취급한 1심 때와 달리 우리가 “외형상 <레프트21> 신문 판매 행위라는 형식”을 띠었다고 했다. 또 최근 종로경찰서는 종각역 거리 판매를 위해 <레프트21> 측이 낸 집회 신고서를 반려했다. “신문 판매는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말이다. 이런 상황은 검찰의 입장을 더욱 공격하게 만들고 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억지 항소를 기각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나아가 6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10월 26일 2심 2차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이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증거가 나오든지 우리는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굽힘 없이 투쟁할 것이다. 2차 재판에 많은 방청을 바란다.



지금의 세계 자본주의 위기는 '리콜도 애플터서비스도 불가능하다. 대안 사회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람들의 참가가 가로막혔지만 집회는 매우 급진적인 열기로 넘쳤고 청년·학생들의 참가가 인상적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1퍼센트에게 세금을, 99퍼센트에게 복지를”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스페인에서 온 청년들도 “그리스 노동자 투쟁을 지지한다”, “혁명이 유일한 해법이다” 등의 구호를 쓴 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가했다.  
1퍼센트만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고, 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 비준을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아랍 혁명과 유럽 노동자 파업처럼 청년들의 저항과 노동자 투쟁을 결합시켜서 전 세계적 반란의 뜨거운 겨울을 만드는 데 앞장서자”는 주장도 나왔다.  
체제와 정부를 폭로하고 비판하며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진보연대, 다함께 등 각종 사회단체들이 포함된 '99퍼센트의

연결돼 있는 것이다.  
한국 지배자들도 한미FTA를 통해 미국과 지정학적 동맹을 강화하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밀리지 않는 위치에 서고 남북관계에서도 더 주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미FTA를 ‘날은’ 노무현 정부는 이것을 ‘동북아 중심 국가’로 불렀고 한미FTA를 ‘키운’ 이명박 정부는 ‘신아시아 외교’라고 불렀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지지층의 반발도 무릅쓰며 한미FTA를 추진했고, 이명박 정부는 자동차 부문 등에서 일부 양보하면서까지 재협상 타결에 매달렸다.

그러나 이런 안보 동맹 강화는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며 남북한 상호 포격 사태 같은 긴장을 더 부추길 것이다. 2008년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은 더 커졌고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로 진출을 확대하는 등 지정학적 경쟁에서도 미국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고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적 경쟁을 심화할 한미FTA 비준을 저지해야 한다.  
장호중  
》 관련기사 16면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2차 재판

일시 : 10월 26일(수) 오후 5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2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판사 : 형사항소소과 제5형사부 양현주 판사

● 트위터에서 대책위 소식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트위터 : @support6wit

● 블로그와 이메일로 지지 메시지를 보내 주세요

블로그 http://support6istory.com /

이메일 support6@jinbo.net

● 재판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우리은행 1002-337446-442 (신명회)

후원 웹 페이지 http://www.left21.com/\_support.php?from=support6

※ 후원 웹 페이지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10월 22일(토) 오후 3시 서울 시청광장

전국비정규직 노동자대회

주최: 전국비정규직 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

10월 22일(토) 오후 7시 서울 시청광장

Occupy Seoul — 1%에 맞선 99%, 분노하는 99% 광장을 점령하라!

주최: 99%행동 준비회의

10월 28일(금) 시간과 장소 추후 공지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주최: 한미FTA저지 범국민, 민중의 힘(준)

행동 준비 회의'는 10월 22일에도 2차 집회를 열어서 이 운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는 지금, 이 운동은 현 체제와는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영감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자본주의적이며 국제주의적인 이 운동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데 우리 모두 함께하자.



# 전 세계적 반란이 시작되고 있다

10월 15일 대규모 시위는 수많은 사람이 은행, 기업과 전광광 들에게 느끼던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10월 15일 시위는 2003년 2월 15일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 이후 가장 큰 국제 공동 행동이었다.

많은 도시에서 시위대는 광장 점거를 시작했다.

런던에서는 시위대 수백 명이 광장 점거에 돌입했다. 그들은 11월 30일 공공부문 노동자 총파업과 11월 9일 전국 학생 시위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 시위 참가자들은 오늘날 세상이 무언가 잘못됐고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정서를 표현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자신을 '99퍼센트'라고 부르면서 99퍼센트를 착취하고 강탈해 권력과 부를 축적한 '1퍼센트' 엘리트들과 자신들을 구별했다.

11월 30일 영국에서는 노동자 3백만 명이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 파업은 보수당의 연금 개혁에 항의하는 것이자 일자리와 공공서비스 공격을 막으려는 것이다.

10월 19일부터 그리스 노동자 수백만 명은 48시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런 힘이 합쳐지면 우리는 1퍼센트를 위한 정책을 좌절시킬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세상을 극소수의 부유한 기생충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뉴욕에서

아닌디아 바티차리아 영국 <쇼셜리스트 워커> 기자



10월 15일 국제 공동 행동에 참가한 미국(위)과 한국(아래) 시위대.



## 스페인에서 1백만 명이 분노를 터뜨리다

10월 15일 스페인 전역에서 1백만 명이상이 집한 시위를 벌이면서 '분노한 자들' 운동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 마드리드에서는 무려 5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교사 노동자들을 포함해 스페인 정부의 건축 정책에 맞서 투쟁 중인 많은 노동자가 이날 시위에 참가했다. 교사들은 최근 반건축 파업과 점거 투쟁을 벌였다.

바르셀로나에서는 3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사라고사에서 10만 명, 세비아에서 4만 명, 발렌시아에서 4만 명이 참가했다.

무수히 많은 소도시와 마을 들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노조와 좌파 정당 들도 회원을 적극 동원했다.

시위는 눈물을 참기 힘들 정도로 감격적인 축제 분위기였다. 이날 저녁 마드리드의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서는 1백 50명의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환희의 찬가'를 연주했다.

이제 겨우 5개월 된 기층 운동이 조직한 점을 감안하면, 이날 시위 규모는 매우 컸다.

이날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놀랍지 않다. 10월 15일을 국제 행동의 날로 삼자는 제안은 지난여름 스페인의 '분노한 자들' 운동이 먼저 제기한 것이었다.

지역 정부들이 야만적 건축 정책을 퍼

자 노동자들은 파업과 투쟁을 벌이고 있고, 이것은 '분노한 자들' 운동의 유지와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일상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운동에 참가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다.

이 운동의 일부가 노조의 참가를 거부하는 것은 이 운동이 작업장 투쟁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게 만든다.

그러나 이 운동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이 운동의 사상들을 자신들의 투쟁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자체적으로 총회를 여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운동의 사상을 투쟁에 적용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서 루크 스토바트

이렇게 생각한다

## 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자

우리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란 소리를 많이 듣는다. 그래서 서로 자기 몫을 챙기려 아귀다툼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10월 15일 국제 시위는 그것이 거짓말이란 점을 증명했다.

10월 15일 전 세계에서 행진을 한 사람들, 광장을 점거한 사람들은 은행가들이 엄청난 돈을 챙긴 대가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에게 큰 힘을 줬다.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우리는 99퍼센트다' 하고 외쳤다. 우리 일자리, 우리 집과 우리의 존엄성을 앗아간 극소수 부자들에게 맞서 우리는 단결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행진했다.

이집트의 타흐리르 광장에서 스페인의 '분노한 자들' 운동까지, 월가에서 한국의 서울까지 반란은 빠른 속도로 '전염'되고 있다.

올해 2월 이집트에서 호스니 무바라크가 몰락한 후 아랍의 봄은 끔찍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

예멘에서 시위대는 친독재 세력들의 로켓 공격을 받으면서도 물러나길 거부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자기 이름과 출생일을 가슴에 적고 시위에 참가한다.

시위 도중에 죽어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다!

사방에서 이런 집단적 용기와 연대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1퍼센트'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1퍼센트를 대변하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시위대가 세계 금융시스템에 분노를 표시한 것은 정당하다. 변화를 바라는 외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배자들은 북아프리카와 아랍에서 발생한 저항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자신들이 큰 곤경에 처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노동계급이기 때문이다. 1퍼센트는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 외에 하는 일이 없다.

그들은 대다수 사람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굶주리고 살아간다는 사실 덕분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사람들이 눈을 열고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도록 자극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일어서면 1퍼센트는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99퍼센트의 저항'에 동참하길 꺼리는 태도 비판

10월 15일 전 세계적으로 열린 반자본주의 시위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한국에서도 노동자·청년·학생이 모여서 '99퍼센트의 저항'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그런데 진보진영의 일부는 부적절하게도 이 운동에 등을 돌리고 있다. 민주노동당에서 당권을 잡고 있는 자주파 계열의 경기동부연합의 태도가 바로 그렇다. 이 동지들은 '지금에 한미FTA 반대 투쟁을 열심히 할 때'라는 등의 이유로 '99퍼센트의 행동 준비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99퍼센트의 저항' 운동을 대표적인 '1퍼센트를 위한' 정책인 한미FTA 저지 투쟁과 결합시키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래야만 한미FTA 저지 투쟁이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고 받

기 문제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10월 15일에는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를 사전집회 형식으로 하고 이어서 '오쿠파이(Occupy) 서울 국제 행동의 날' 집회가 이어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났다.

### 시너지 효과

문제는 경기동부연합과 민주노동당 지도부 등이 그동안 한미FTA 저지 투쟁을 대중적인 저항 건설에 강조점을 두기보다 민주당 의존적으로 해 온 것에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런 방향과 어긋나는 듯 싶자 '99퍼센트의 저항' 운동에 종파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물론 국제주의적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열의와 이해 부족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스탈린주의적 당 개념, 즉 당이 계급과 운동을 대표한다고 보는 대리주의적 당 개념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자신들이 제기하고 주도하는 운동과 쟁점이 아니면 정세에서 벗어난 것으로 취급하며 종파적 태도를 취하기 쉽다. 당을 계급의 일부로 보면서 당과 계급이 투쟁 속에서 서로 대화하고 배우는 변증법적 관계라고 보는 것이 옳은 태도인데 말이다.

'99퍼센트의 저항' 운동은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 고통진가에 맞선 전 세계적 반란의 시작을 보여 준다. 이 역사적인 운동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이 투쟁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게 진정한 좌파의 자세일 것이다.

최영준





월가 점거 운동 참가자의 기고

# 월가 시위와 미국 노동운동의 새 바람

크리스 킴  
미국 국제사회주의조직(ISO) 활동가, 한국계 미국인

9월 17일, 뉴욕 월가에 5백여 명이 모 여들었다. ‘아랍의 봄’과 스페인 광장 점 거 투쟁 등에 영향을 받은 ‘월가 점거’ 시 위대는 “우리는 노조원, 학생, 교사, 노 병, 실업자 그리고 비정규직이다. … 우 리는 99퍼센트고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것 이다” 하고 선언했다.

시위대는 주코티 공원에서 시위를 시 작하며 그 공원 이름을 ‘자유 광장’으로 바꿨다. 그리고 매일 총회를 통해서 민주 적으로 토론하며 점거를 유지하고 있다.

9월 21일 누명을 쓴 트로이 데이비스 의 사형이 집행되자 1천여 명이 자유 광 장에서 월가 점거 시위대들과 함께 “우리 는 모두 트로이 데이비스다!”라는 구호 를 외치며 행진했다.

월가 점거 시위대는 또 44일 동안 파 업을 해서 승리한 보트하우스 레스토랑 노동자들과 연대했고, 뉴욕 시립대학 학 부노조 · 조교들의 시위, 우편 서비스 노 동자들의 고용안정 요구 시위에도 연대 하고 있다.

월가 점거가 전국적 초점이 된 계기는 9월 24일이었다. 이날 시위대 중 80명이 체포됐고, 경찰들의 야만적인 폭력은 ‘유 튜브’ 동영상을 통해 퍼져 나갔다. 이것 은 사람들의 분노와 정의감을 자극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하는 결 과를 낳았다.

그후 점거 참여자는 약 5천 명으로 늘 었고 유명한 작가들이나 활동가들도 이 시위에 참석해 지지와 연대를 보냈으며 운송노동자연합(TWU), 팀스터스 노조, 세계산업노동자동맹(IWW) 같은 노동조 합들도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미국 52개 미국 도시에서 “점거” 계획을 선언하거나 실천하기 시 작했다. 시위자들의 경험과 쟁점들을 다 루는 <점거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도 새롭게 나왔다.

시위대들의 행진 뒤에는 항상 길거리 와 가게에서 환호와 지지를 보내는 사람 들이 있고, 차 안에서 격려의 경적을 놀 러 주는 모습도 보인다.

결국 침묵을 지켜 왔던 주류 언론들도 취재를 하기 시작했다. <뉴욕>는 시위 대를 비웃으며 “시위자들은 하나같이 게 으름뱅이들, 히피들”이라고 썼지만, 실제 로 월가 점거자들은 청년 실업률 48.8퍼 센트, 전체 실업률 9.1퍼센트 속에서 고통 을 겪다가 투쟁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미국철강노동자노조(USW) 의장 레



시위대가 발행한 신문 <점거된 월스트리트 저널>을 들고 있는 월가 점거 시위자

오 게라드는 월가 점거와 노동계급이 공 통된 이익과 분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위하고 있는 용감한 이들[은] … 많은 사 람들을 대변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을 준 기업들의 탐욕, 부패, 오만함에 우리는 이제 참을 수 없다.”

## 노동운동의 새 바람

물론 미국의 노동조합은 몇십 년 동안 민주당에 종속돼 왔고 좌파들은 약화되 고 분열해 왔다. 그래서 이집트나 그리스 의 투쟁과 비교할 때 인내심을 갖고 더욱 철저히 조직하며 투쟁을 발전시키는 것 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99퍼센트”의 고통과 분노에서 일어나는 이 저항은 새로운 계급의식의 발 전을 고무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투 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월가 점거’가 다 른 투쟁들과 연속성 없이 어디선가 갑자기 폭발한 것처럼 보도한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노동운동의 새 바람과 연관돼 있다.

미국의 노동운동은 1934년 이후 총파 업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약화돼 왔다.

그러나 올해 초 이집트 혁명의 영감을 받아서 2월에는 위스콘신주에서 반노조 법에 항의해 노동자, 학생, 시민 5천여 명이 주의회 점거 투쟁을 벌였다.

8월에도 버라이즌 사의 임금 삭감과 반노조적 계약에 반대한 노동자 4만 5천 명이 파업을 벌여 미국 노동운동의 새 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버라이 즌과 관계된 물건의 운반을 전면 거부한 UPS[미국 화물 운반 회사] 노동자들의 연대도 인상적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뉴욕 롱 아일랜드 대학 교사들의 시위, 몇 주 동안 계속되는 하얏트 호텔 노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 우편 서비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을 위한 저항 등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기 힘들었던 노동자 투쟁의 바람이 미국을

휩쓸고 있다.

‘월가 점거’는 바로 이런 새로운 노동운동 의 바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업 이윤을 위한 긴축정책에 맞서 싸 우고 있는 점거 운동은 점점 미국의 노동 자들과의 연대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해고 등에 맞서는 노동자들과 점거 시위 대가 연대하는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 고 있다.

월가 점거 시위대와 노동자들의 연 대를 제일 강하고 뜨겁게 보여 준 것은 10월 5일 맨해튼에서였다.

## 고통과 분노

이날 여러 대표적인 노동조합들의 참 여 속에 노동자 · 학생 · 실업자 등 2만여 명이 단결해 행진한 것은 ‘월가 점거’가 단순히 “히피들의 축제”가 아니며, 수많 은 노동자들이 고통과 분노를 공감하며 함께 대안을 갈망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특히 10월 1일 경찰이 브루클린 다리 에서 7백여 명을 체포하며 4일 후에 있 을 대규모 시위를 위축시키려 했던 것을 볼 때 10월 5일에 사람들이 보여 준 참가 율과 투지는 큰 의미가 있었다.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한 여성 참가자는 “이 정도 로는 안 된다. 나는 저들이 두렵지않다. 저들의 폭행은 내가 더욱 이 시위에 참가 할 이유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바루치 대학 영문과 교수이며 노동운 동가인 제키 디 살보는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노동계급에 속해 있 다. 이 젊은이들은 실직됐고, 고용이 불 안정하고, 임금도 적게 받고, 여러 아르 바이트를 하기에 별 어려움 없이 자신을 노동운동과 동일시한다. 많은 이들은 자 기 일터에 노조가 있길 원한다.”

실제로 이들은 다인종 · 다문화적 배 경의 노동계급이며 ‘오바마가 사회주의 자’라는 황당한 헛소리에 젖어 있지도 않 고 기업 이윤과 전쟁의 연관성을 이해하 는 사람들이다.

국제적인 연대 속에 계속 커져 가는 이 저항에는 평소에 정치에 관심도 없었 고 시위에 참여해 보지 못했지만 공화 당 · 민주당 같은 친기업 정당들로 오염 된 미국 정치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급진화하면서 저항에 참여 하고 있다.

점거 운동과 노동운동의 단결은 “99퍼 센트”의 계급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투쟁 으로 발전돼야 한다.

이 글의 전문은 <레프트21> 웹사이트([www. left21.com](http://www.left21.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감전될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뉴욕 시위

뉴욕에서 켄 로에치

10월 15일 뉴욕에서는 10만 명이 타임스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공화당 소속 시장 마이 클 블룸버그는 전날 시위대를 금융가에서 몰아내려고 시도했 지만, 시위대는 이에 맞서 대응 을 거뒀다.

맨하탄 중심가는 도로부터 인 도까지 시위 참가자들로 가득했 다. 시 정부는는 이 시위를 허용하 지 않았지만, 경찰들은 광장으 로 몰려드는 수만 명을 막을 수 없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하려고 멀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워싱턴 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정오에는 ‘월스트리트=워스트 리트(war street)’라는 제목 아래 아프가니스탄 전쟁 10년을 비판 하는 또 다른 시위가 시작됐다. 미국의 반전연합체인 전국반전 위원회연합이 주최한 시위였다.

한편, 학생 수백 명은 워싱턴 공원에서 총회를 열었다. 그들 은 ‘제 이름은 ㅁㅁ이며 학자금 부채를 ㅁㅁ만큼 지고 있습니다’ 라는 버튼을 착용했다. 그들은 엄청난 학생 부채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에 관 해서 논의했다.

예컨대, 한 젊은 흑인 학생은 경찰들이 폭하면 자신을 검문하 고 괴롭힌다고 폭로했다.

사람들은 연대 정신과 자신감

이 넘쳤다. 한 시위 참가자가 주 코티 공원에 가져온 팻말은 의미 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저는 히피가 아니에요. 저는 일자리가 세 개지만 여전히 파산 상태예요.’

기층 노조 활동가들은 월가 점거 운동에서 노동자들의 참가 를 늘리기 위한 활동에 참가하 겠다는 조합원들을 수백 명이나 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조합원들이 노력한 결 과로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이 광장으로 몰려들었고 분위기는 감전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이날 저녁 내내 사람들은 ‘우 리를 모두 체포할 수는 없을 걸!’ 하고 소리쳤다.

운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된 것

을 인식하면서 이런 자신감은 더 커졌다.

사람들은 ‘전 세계가 행진하고 있다’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대부분 처음으로 정치 행동에 참가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광장은 서 로의 사연을 나누고 새로운 사 상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월가 점거 운동은 4주 동안 현 기증 나는 속도로 성장했고 엄 청나게 광범한 호응을 얻는 운 동이 됐다.

이 운동이 세계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참가하면서 우리는 새로 운 투쟁의 시기에 들어섰다.

출처:영국반자본주의주간지<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 미국 계급의식의 전환점

뉴올리언스에서 조나선 닐  
(두 개의 미국)(책갈피)의 저자

월가 점거 운동은 미국 계급의 식의 전환점이다. 지난 60년 동 안 미국 좌파와 자유주의 정치는 정체성 문제와 외교 정책에 주로 신경을 썼다.

또, 지난 30년 동안 미국 좌파 와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만이 대학 졸업자를 포함 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동계급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제 한세대가 입을 모아 경제가 핵심 문제고, 우리 대다수가 지배계급의 적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들은 이 점을 매우 간결하고 눈에 띄고 신선한 방식으로 표현

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20년 동 안의 경험을 잘 요약해 주는 표현 이며, 미국 보통 사람들의 삶을 매우 잘 설명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이런 의식 변화를 역 전시킬 수 없을 것이다. 또, 시위 참 가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계급적으 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들이 이들과 연판맺기 쉬울 것이다.

이런 의식 변화는 엄청난 변화 를 낳을 것이다.

뉴멕시코주 산타페에서 한 남 자는 손수 제작한 팻말을 들고 나 왔는데, 그 팻말에는 이런 말이 써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람들이다.’

출처:영국반자본주의주간지<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타흐리르에서 아테네를 거쳐 월스트리트까지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2011년은 기적의 해다. 2011년은 처음에는 이집트와 튀니지 혁명, 나중에는 자본주의에 맞선 국제 행동의 날을 낳았다. 10월 15일 전 세계적으로 약 1백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두 사건 - 아랍 혁명과 10월 15일 시위 - 은 연관돼 있다. 아랍 혁명, 특히 타흐리르 광장 점거는 집단적 자기해방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보여 줬다. 따라서 혁명이란 상상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사는 곳에서 타흐리르 광장을 재연하려는 의지를 목격하고 있다. 스페인 전역의 광장들을 점거했던 '5월 15일 운동'은 그 의지를 보여 준 것이었다.

10월 15일을 국제 행동의 날로 삼고 처음 주장한 것은 스페인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을 현실로 만든 것은 뉴욕에서 시작된 월가 점거 운동이 준 충격이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10여 년 전에 자본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 운동이 나타난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미국에서 발생한 저항 - 1999년 11월 WTO 정상회담 반대 시위 - 이 전 세계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물론 그 반향이 퍼지는 속도는 지금이 훨씬 빠르다. 시애틀 시위는 수년간 발전해 온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수면으로 부상하는 계기였다. 그러나 당시 유럽에서 첫번째로 중요한 반신자유주의 저항 - 2000년 9월 프라하 IMF 반대 시위 - 이 발생하는 데는 거의 1년이 걸렸다.

미국을 보면, 당시와 오늘날 상황이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고,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충돌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 빌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처럼 자신의 당선으로 미국 좌



사진 출처: Galinos-Paparonis Olysees

10월 15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벌어진 아랍 혁명 지지 시위. 자신이 사는 곳에서 타흐리르 광장을 재현하려는 의지

파에서 일어났던 변화의 열망을 배신했다.

당시와 오늘의 가장 큰 차이는 현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티파티 운동이 주도하는 공화당 우익은 1990년대 중반 뉴이트 킹그리치가 주도하던 때보다 훨씬 더 제정신이 아니다. 또, 1990년대 말 미국 경제는 호황이었지만 지금은 심각한 불황에 빠져 있다.

## 아랍 혁명

현 경제 위기는 반향의 전파 속도가 빠른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또, 우리는 페이스북과 다른 소셜미디어들이 투쟁 소식들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

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아랍 혁명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90년대 말에 혁명이라 하면, 스탈린주의 정권이 몰락하고 친서방적 신자유주의 정권이 수립된 혁명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제 혁명하면 우리는 타흐리르 광장을 떠올린다. 타흐리르 광장은 중동에서 가장 친미적인 정권에 맞선 투쟁을 상징했다. 그러나 타흐리르 광장은 전체 이집트 혁명의 관점에서 보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집트 혁명은 훨씬 복합적인 과정이다.

알렉산드리아와 포스 사이드 같은 곳에서 호스니 무바라크에 맞선 반탄

은 훨씬 강렬하고 폭력적이었다. 물론 이집트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양한 진보적 정치·사회 세력들은 종교 사이의 학살을 조장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군부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 투쟁의 결과는 이집트의 대다수 노동자·농민·도시 빈민들이 어떤 정치적 실천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집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폭발한 거리 시위 형태의 운동 - 영국에서는 아랍 혁명 이전에 학생 시위로 시작됐다 - 이 조직 노동계급 운동과 결합할 수도 있다. 월가 점거 운동이 뉴욕 노조의 지지를 얻은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다.

그러나 슬라보예 지젝이 최근 월가 점거 운동 참가자들에게 한 말은 절대적으로 옳았다. 그는 우리가 도취감에 빠져서는 안 되고 어떻게 더 넓은 사회적 기반 위에서 투쟁을 벌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과 사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기서 보내는 좋은 순간과 사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축제를 즐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축제의 가치는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우리의 일상 생활이 얼마나 바뀌었느냐를 통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고되고 힘든 일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우리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번역 김용욱

## 자본주의 아닌 다른 세상은 불가능한가

종종 자본주의 없는 삶을 상상하기 힘들 때가 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삶이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명한 진화심리학자들은 오늘날 사회의 특성을 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투영한다. 또, 대중 문화에서 그려지는 미래 사회의 모습은 오늘날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의 표현인 것처럼 보는 것이다.

모든 사회에서 권력을 쥔 자들은 기성 질서가 가장 자연스런 질서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간 역사는 끊임없이 요동치면서 변했다. 영원해 보이던 사회 질서는 변화를 바라는 대중에 의해 무너지거나, 아니면 타락하면서 기아, 내전과 몰락으로 이어졌다.

옛날에 사람들은 왕이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를 둘러보면 대다수 사회에서 왕은 사라졌다.

거대한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영원한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파라오의 권력은 지금 완전히 사라졌다. 그럼, 자본주의는 이들과 다른가?

독일 혁명이 칼 마르크스는 각 시대의 사회는 자신의 파괴와 전복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봉건제에서 왕과 귀족들은 무



‘마르크스가 옳았다’ 월가 점거 참가자

소불위의 권력자로 보였지만, 봉건제 아래 봉건제를 궁극적으로 약화시킨 상인, 은행가, 소산업가들이 탄생했다. 이런 갈등이 자본주의를 낳았다.

계급들 사이의 투쟁은 결론이 같지 않다. 지배계급은 자신이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에 의해 쫓겨날 수도 있다. 오늘날 그것은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들의 항쟁이 성공적 혁명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그 투쟁은 또한 마르크스가 말한 “적대 계급들 사이의 공멸”로 끝날 수도 있다. 진보를 가로 막는 지배계급들은 전체 사회를 파국으로 몰아넣어서라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할 수도 있

다. 중미의 마야 제국과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몰락이 대표적 사례다.

동일한 논리가 오늘날 어떤 상황을 낳을지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자본주의는 이미 바다를 오염시키고 사막화를 촉진시키고 기후 변화를 낳고 있다.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생태 재앙을 낳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제2차세계대전을 거쳐서야 1930년대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본주의가 더 고도화된 오늘날에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참혹한 대가가 필요할까?

##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

역사적으로 인간 사회는 크게 변해 왔다. 초기 자본주의와 비교해도 변했다.

마르크스가 글을 썼던 시기와 비교하면 오늘날 영국에만 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 노동자가 존재한다.

인류는 고작 몇십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거대한 산업을 만들어 냈다.

이전의 사회 질서처럼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말한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 -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 계급 - 을 창조했다.

자본가들은 착취할 노동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 노동자들은 사회의 모든 부를 창

조하며, 종종 대형 작업장과 도시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사장들은 노동자들이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은 사장이 필요하지 않다.

한편, 자본주의는 끝없는 경기순환을 겪으면서 반복적으로 위기에 빠진다.

이 경향은 1930년대 대공황을 낳았다. 자본주의는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폭력과 파괴를 통해 대공황을 ‘극복’했다.

그 이후로 경기 순환이 다시 시작됐다. 그러나 이제 자본주의는 훨씬 더 커졌고 ‘대마불사’의 대기업들로 더 많은 부가 집중돼 있다.

현 위기가 마지막 위기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러시아 혁명이 블라디미르 레닌은 자본주의가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말이다.

바로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의 사장들이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는 자본주의와 함께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타도하는 노동자 혁명이 발생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의 폭력적 붕괴가 발생할 것이냐다.

독일 혁명이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했듯이 문제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노엄 촘스키

## “노동자들의 참가가 중요합니다”

저명한반제국주의사상가이자활동가인노엄 촘스키는 최근 런던에서 열린 1천 명이 참가한 강연회에서 월가 시위를 가리켜 ‘자본주의에 맞선 대중적 시위’라고 불렀다. 아래는 강연의 내용이다.

“월가 점거 시위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많은 청년이 참가하면서 주도한 이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월가 시위를 1930년대 미국 공장 점거 파업이나 아랍 혁명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공장 점거 파업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공장 소유주와 관리자는 충격받았습니다. 공장 점거 파업은 노동자들이 사장과 관리자를 내쫓고 공장을 자주 관리하기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랍 혁명은 그 나라에 전투적이고 강력한 노동 운동이 존재할 때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혁명이 대성공을 거둔 것은 혁명 발생 이전에 대규모 노동자 투쟁들이 진행돼 왔고 이들이 혁명이 발생할 길을 터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운동이 진지하게 운동에 뛰어든 자 혁명의 목표들이 실현될 수 있었습다. 이번 월가 점거 시위는 이미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성공을 거두려면 바로 이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10·26 재보선

# ‘1퍼센트’ 정권·후보의 굴욕을 보고 싶다

이번 선거는 전 세계적 경제 위기와 고통 전가에 맞선 투쟁이 공존하는 시기에 치러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폭발 직전의 화를 누르고 있는 인구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 부자 몇 명이 기부금과 세금을 내는 것으로 해결될 구조가 아니다”라고 걱정했다.

이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불만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명박 정권은 내부 분열을 계속하고 있다.

“강남지역에서도 상황이 안 좋다”, “이 선거 망했어”라는 말까지 나온다.

별다른 출구가 없는 한나라당은 오로지 박원순 후보를 흡집내며 흠탕물을 튀기는 ‘더러운 선거’ 전략에 매달리고 있다. 젊은 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수록 이익이므로 환멸스러운 아수라장을 만들어서 젊은 층이 투표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사악한 계산인 것이다.

이런 시도에 박원순 후보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반면, 위기감을 느낀 우파가 결집하면서 나경원의 지지율은 최근 조금 올라간 듯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승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실, 병역기피 전문가들이자, 대기업에서 차떼기로 검은 돈을 받은 자들이 상대 후보를 “악취나는 의혹 투성이”라고 비난하는 행태는 평범한 사람들의 냉소를 자아낼 뿐이다. 부패·비리 의혹들을 제기하면 할수록 ‘누워서 침 뱉기’이고 한나라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4년간 분노와 불만이 쌓여 왔고, 정부가 앞으로도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한나라당 후보들은 지지율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완성판인 한미FTA를 밀어붙이고 있고, 파견근로를 고착화시킬 파견법 개악도 추진 중이다. 공공요금도 줄줄이 올릴 예정이다.

주한미군이 온갖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이명박은 미국을 방문해 “피로 뺏어진 동맹” 운운하고 “오바마의 러닝메이트”라는 말까지 들으며 미국 지배자들의 환심을 사려 했다.

이런 부도덕하고, 부정의하며, 반민중적인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참패해야 한다.



10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99퍼센트 행동’ 10·26 재보선은 1퍼센트를 위한 이명박 정부와 정책을 심판하는 장이 돼야 한다.

## 나경원 — 1퍼센트 특권층의 앞잡이

나경원은 “아름다운 꽃”(한나라당 대표 황우여)이긴커녕 뱃속까지 ‘귀족녀’에, 추악한 우파 정치인이다.

그의 출신 배경 자체가 1퍼센트 특권층이다. 나경원의 아버지는 유명 사립재단 소유주다. 그는 2005년에 아버지 소유의 학교가 교육부 감사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동료 의원들에게 청탁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나경원은 신고한 재산만 40억 6천만 원이고, 2004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7년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 사이 상가 한 채를 13억 원이나 차액을 남기고 팔았다고 한다. 게다가 이 상가에는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는 유혹업소도 있었다.

나경원의 14살 된 아들은 1년 학비가 한국 사립대학 4년치 등록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알려진 미국 명문 기숙 사립학교에 다닌다. 이런 그가 빚내서 대학 보내는 평범한 노동계급 부모의 아픔을 알리가 없다.

정치색도 매우 우파적이다. 나경원을 정치에 입문시킨 장본인은 ‘원조 보수’ 이회창이다.

나경원은 ‘도가니’ 사태같은 일을 막기 위해 추진한 사립학교법 개정 등에 대해 “전교조에게 학교 내주는 사학법 개정, 우리 촛불들과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막았다”며 자랑스러워 했다. 성폭행뿐 아니라 아동 살해·암매장까지 벌어졌던 인화학교 사건 같은 일들을 방지하려는 시도를 막아선 것이다.

나경원은 ‘조중동’ 방송을 위한 미디어법 통과에 앞장서 ‘언론 5적’으로 지목됐다. “재벌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 규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해 재벌 비호에도 앞장섰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적극 반대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나경원은 ‘여자 오세훈’이기도 하다. 무상급식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성전”이라며 앞장서서 방어했다. 이런 자가 시장이 되면 오세훈 패처럼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불타 죽고, 포이동에서 할머니가 용역깡패에 피명들게 맞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런 일은 상상하기도 싫다.

‘내곡동 게이트’

## 이명박식 반칙의 종합판

‘내곡동 게이트’가 이명박 비리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아들 이시형과 청와대가 강남에 54억짜리 사저터를 사들이면서 이시형 개인 땅은 감정가보다 싸게, 경호시설은 감정가보다 비싸게 사는 꼼수로 세금을 도둑질했다는 것이다. 실제 돈 낼 사람은 이명박이지만 아들 명의로 사면서 증여세를 끌궜했다는 의혹도 있다.

너무나 악취가 심해서 한나라당조차 “대통령 사저 문제가 표를 다 깎아먹는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지경이 됐다. 결국 내곡동 사저는 백지화됐지만,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내곡동 땅의 실 소유주는 제3자인 대기업이고, 실 소유주와의 이면계약이 따로 있다는 추측도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국 국고 42억 원만 실소유주 손에 들어가고 이시형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말 ‘가진 놈이 더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국철 게이트’도 계속되고 있다. 이국철 SLS 회장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던 신재민은 결국 비리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이 나왔고, 이국철의 폭로는 이제 또다른 정권 실세 3인방(전 지경부 차관 박영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광승준, 홍보비서관 임재현)을 겨누고 있다.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자, 이국철은 “검사장급 4명에게 건넨 돈이 모두 1억 원”, “만일 내가 구속된다면 검사들의 이름이 적힌 비망록을 공개하겠다”며 반격하고 있다.

여기에, 2007년 대선 직전 BBK 의혹을 덮기 위해 제기됐던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로 제시된 편지가 이명박 캠프의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편지의 실제 작성자가 등장해 최근 “한나라당 BBK대책 법률팀에서 8번이나 검토한” 내용을 자신이 그대로 베껴 썼다고 실토했다. 정말 이명박 정권은 철두철미 썩었다.

## 진보 후보들과 박원순 후보의 전진을 기대하며

10·26 재보선에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박승흡 강원 인제군수 후보와 진보신당의 민동원 서울 양천구청장 후보 등 진보 후보들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거꾸러뜨릴 진심으로 바란다.

19일 발표한 “서울시민권리선언”에서 박원순 후보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시민의 권리”라고 밝혔다. “주거권 보장과 강제퇴거 방지”, “고용 안정과 적정 임금 보장”,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대중의 요구도 “[서울]시의 의무”라고 약속했다.

박원순 후보는 “오세훈 전 시장은 이명박 전 시장의 아바타, 나경원 후보는 오세훈 전 시장의 아바타”라고 비판했고, “나경원이 노동자 편입니까? 박원순이 노동자 편입니까?”라고 노동자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박원순 후보에 대한 한나라당의 온갖 비방과 인신공격과 색깔론은 역겨워서 듣고 있기 괴로울 정도다.

그런데 초기보다 박원순 후보의 지지도가 다소 정체하는 듯한 것에는 이뿐 아니라 박원순 후보의 초반 선거운동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첫째, 박원순 후보는 민주당 입당을 거절한 대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모두 민주당에게 줬다. ‘야권연대’에 충실해 왔던 민주노동당마저 반발해 철수할 정도였다.

### 아쉬움

이는 박원순 후보의 정책과 메시지가 민주당의 포지션에 구속되는 결과를 낳았고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선본에서 잘 들리지 않는 효과를 냈다.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에선 진보신당 후보를 빼고 민주당 후보와만 정책 협약식을 해 진보신당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박원순 선본은 교육시민단체들이 모인 ‘교육연대’가 제안한 교육개혁 정책 협약을 곧바로 수용하지 않았고, 노동 부문의 정책 협약 요구 수용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지금,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점도 아쉽다.

박원순 후보는 진보 진영에서는 금기시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해서 국가보안법은 “남용될 수 있다면 그 조항은 개폐되는 게 맞다”며 전면 폐지 입장에

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는] 유럽 기준으로 치면 중도 우파”라고 자처하거나 “저는 천안함 북한 소행이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도 수세적으로 비취졌다.

둘째, 박원순 후보는 이 선거를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장으로 삼지 못했다. “잘한 것도 분명히 있다”거나 “시정의 연속성을 중시하겠다”는 논법도 부적절했다.

여기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박원순 후보가 추구해 온 대안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박 후보의 온정적 개혁주의는 재벌 기부와 사회적 기업 등 정부·기업과 협력·보완 관계로 일하는 ‘협치(거버넌스)’이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지원 같은 청년 실업 대안은 나경원과 별 차별성도 없었다.

그래서 지지자들 사이에선 박 후보가 “착한 시장 뽐기”에 나왔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것은 진보정당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심판을 위해 박 후보에게 표를 던지려는 이들에게도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지지층에서 비판이 일고 지지율도 답보하자, 박원순 후보는 다행히 “더이상



박 후보는 장충체육관에 몰려들었던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더 선명한 진보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순 원순 아닙니다” 하며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박원순 후보는 이제라도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더 선명하고 과감하게 이명박 정권과 나경원 후보를 비판하고, 급진적 대

안을 제시해야 한다. 진보 활동가들은 재보선 이후에도 한미FTA 반대 투쟁과 ‘99퍼센트 행동’ 등 아래로부터 운동을 지속하며 반MB 진보 대안 건설을 계속하자.



# 안철수·박원순 현상과 진보정당

안철수 현상을 두고 정치인과 평론가들은 대부분 “정치 불신”, “정당 실패”, “정당정치의 위기”라고 분석한다.

누구보다 실패했고 불신받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청와대와 국회를 장악 하고서 소수 부자를 위한 정책만 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철수 현상의 출발점은 반한나라 당(반MB·반보수·반재벌) 정서다. 안철수 원장 스스로도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은 현 집권 세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KSOI 여론조사에서도 “안 원장 지지층의 정당 지지도(복수응답)를 보면, 민주노동당(72.5%), 민주당(62.7%), 무당파(46.6%) … 이념 성향도 진보(57%), 중도(45.7%), 보수(23.2%) 순이었다.” 그래서 “안철수 현상”으로 표상되는 … 가치의 방향은 공익, 경제 정의, 공정으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는 한국영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 전문위원의 지적은 옳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반MB 정서를 민주당이 아니라 안철수·박원순 등을 통해 표출하는 것일까. 그것은 민주당이 집권한 경험과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보여 준 모습 때문이다.

노무현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이명박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예고편이었고, MB 4년 동안 민주당은 “싸울 듯 하다가도 결국엔

무릎을 꿇[는] … 같짓자 행보”(시사평론가 김종배)를 보였다. 당장 한미FTA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

결국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의 ‘통치’가 소수 특권층을 위해 다수의 삶을 고통에 빠뜨린 경험 때문에, 부패 소굴이 된 기성 정치 질서 바깥에서 “사회 공헌의 성공 신화”(〈한겨레21〉)를 써 온 안철수 원장, 박원순 후보 같은 이들이 지지를 받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에서도 무려 73퍼센트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자신의 가치와 이해를 대변해 줄 정치적 대안을 못찾는 것이다.

한국영 씨는 노무현 정부 이후 여론조사 추이를 검토한 뒤, “대중의 정치·경제적 인식은 이미 ‘좌클락’하고 있는 데 반해, 정치권은 여전히 보수 편향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 비극

사실 이 반MB 정서와 민주당 불신의 밑바탕에는 계급 문제가 놓여 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노동자의 정치적 이해가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 ‘안철수·박원순 현상’을 초래했다”라고 정확히 지적한다.

그렇다면 왜 지금 진보정당은 노동계급의 반한나라·비민주당 정서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최 교수는 진보정당이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한 뒤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기존 정당과 타협[했다면] … 상당한 힘을 갖는 주요 정당”이 됐을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 중심성에서 멀어져 “기존 정당과 타협”을 추구하는 민주노동당의 ‘묻지마 야권연대’나 강령 후퇴, 참여당과의 통합 시도는 진보정당의 정체성과 존재감만 후퇴시켰다.

돌아보면, “2004년 민노당의 역사적인 의회 진출 때도 국민들이 진보정당 사람들에게 열광했다.”(김영훈) 따라서 “민주노동 중심의 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권영길)

그런 점에서 “노동자가 중심에 선 진보정당”을 위해 “도로 민노당”이 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권영길 의원의 말과 “진보정당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잠재적 세력이 우리 사회에 굳건히 존재한다. … 진보의 개념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원래 설정된 좌표[를] …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노회찬 전 의원의 말이 더 일리있다.

진보진영이 ‘반한나라·비민주당 제3의 대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급진적 대안을 분명히 하되, 대중과 유연하게 접촉하며, ‘희망버스’와 같은 단결과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문성



반한나라당·비민주당 정서가 본격 표출된 계기는 2008년 촛불 항쟁이다. 이때 진보정당들은 민주당과 달리 환영받았다.

## 강기갑 의원에 대한 매도를 중단해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안이 부결된 이후, 참여당과의 통합 찬성파들은 당대회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며 당대회 논쟁과 무관한 강기갑 의원실의 ‘공직특별당비 미납’ 문제를 반대파 흡집내기의 소재로 활용해 왔다.

최근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별당비 미납’을 ‘공금 횡령’이라고 비난했다는 말까지 들린다.

하지만 이런 비난은 온당치 못하다.

물론 강기갑 의원실의 공직특별당비 납부가 밀린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강기갑 의원이 처한 조건도 봐야 한다. 최근 검찰은 당비와 정치후원금을 문제삼으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탄압했다. 노조 등 후원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검찰 조사로 민주노동당은 정치후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공직특별당비 미납의 원인이기도 하다.

당규에 따라 ‘특별당비 매월 납부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당규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월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당부와 협의 하에 납부 시기를 결정한다”는 점을 열어두고 있다. 그래서 강기갑 의원실도 연말 정치후원금 모금을 통해 특별당비를 일괄 납부하겠다고 하고 있다.

## 당 대회

게다가 강기갑 의원실은 미납 특별당비를 의정활동비로 사용해 왔는데, 이를 개인적 ‘횡령’처럼 비난하는 것은 과장·매도다. 법적으로도 ‘횡령’이 아니라고 법률 전문가들도 지적한다. ‘특별당비 미납’을 지적한 감사보고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활동에 나서는 재정 및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지적하며, “중앙당 차원의 논의와 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 최고 지도부 일부까지 가세해 강기갑 의원을 도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강기갑 의원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에 맞서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진보정당



김병규

의원으로서 몇몇차례 활동해 왔다. 정치적 이견을 이유로 강기갑 의원을 매도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당대회 결정을 이행하는 데 열중하는 것이 옳다.

유병규

계속되는 궤노현 논란

## 진보운동의 원칙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

역겨운 우파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궤노현 교육감의 잘못을 비판할 수 없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우파들이 궤 교육감을 비판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다. 지금까지 이명박 측근·친인척 비리 관련자는 알려진 것만 해도 측근이 19명, 친인척이 13명으로 총 32명이나 된다.

또,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16차례 개각을 단행했는데 총리·장관 후보자 총 57명 가운데 부동산 투기·탈세·논문표절·병역기피·위장전입 등 주요 의혹이 두 건 이상인 후보자가 무려 46명이나 됐다.

무엇보다 BBK부터 최근 내곡동 게이트까지 이명박 자신이 부패했다.

이명박을 비롯해 총체적으로 부패한 이들 보수 우파 세력이 궤 교육감을 비판할 자격이 없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검찰은 우파의 궤도 모를 부패에는 한없이 관대하다. 이국철 게이트는 구체적 실명 거론과 정황 설명이 있는데도 묘기 바쁜 검찰이 궤 교육감 사건에는 속전속결이었다. 법원도 무죄 추정 원칙을 어기고 추측 하루 전날 궤 교육감을 구속한 데 이어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동아일보〉는 “궤 교육감이 보석으로 풀려났으면 직무에 복귀해 학생인권조례, 교교선택제 폐지, 혁신학교 신설 등을” 추진했을 것이라며 안도했다. 덧붙여 “이념에 치중”해서 “교육 현장을 들쭉서 놓는 직선 교육감”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

## 대의와 신뢰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번 사건으로 우파들의 공세가 힘을 얻을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우파의 득세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궤 교육감의 잘못까지 방어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돈을 건넌 사실 자체만으로는 “사퇴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선의의 부조”라든 문제도 없다고 주장한다(박동천 전북대 교수). 그러나 궤 교육감은 이미 개인이 아니고 그가 돈을 건넌 사람이 후보단일화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제 아무리 ‘선의’를 의도했다 한들 이 문제는 ‘선의’를 넘어서 일이 돼 버렸다.

평범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2억 원을 단지 ‘선의’로 건넸다는 것을 납득할 만하다고 여길 사람이 몇이나 될지도 의문이다.

“사람됨의 도리”를 인정하지 않는 “편협한 법률”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한상희 건국대 교수). 물론 후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에서 현행 선거법비의 불합리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래서 단일화한 후보에게 돈을 준 사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껏 우파들이 저지른 후보 매수 행위도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던 운동의 전통을 되새겨야 한다.

일부에서는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어떠한 판단도 내려서는 안 된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언제부터 기성 사회의 법률과 법원의 판단이 진보운동에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는가? 법적으로 ‘유죄’나 ‘무죄’냐가 아니라 그가 정치적으로 운동의 대의를 거슬러 대충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것이 핵심이다.

궤 교육감을 비판하고 진보진영에 ‘도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진중권 씨는 졸지에 〈조선일보〉에 세뇌당해 검찰의 논리를 반복하는 사람으로 몰렸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궤 교육감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검찰 좋은 일 시키고 우파의 공세에 힘을 보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보가 그의 행위를 방어하면 할수록 상처를 몇나게 할 뿐이다. 누가 봐도 이중 잣대고, 대중에게 진보진영 역시 다를 바 없게 보이게 해 ‘어차피 정치는 다 똑같다’는 냉소주의만 퍼뜨릴 뿐이다. 이런 냉소주의는 우파의 공세를 막아내고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인 대중의 힘을 모으기 어렵게 한다.

최근 교사들의 자신감이나 노동운동 전반의 투쟁력이 예전만 못한데, 아마도 이것이 더 나은 교육을 바라는 진지한 활동가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궤 교육감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키우는 배경인 듯하다. 전교조 지도부가 올 초 스스로 투쟁을 자제하겠다고 표명하고 중요한 투쟁 과제들을 외면해 온 것도 이런 정서를 부추기는 데 한몫했을 것이다.

그러나 궤 교육감은 이미 신뢰를 잃고 우파에게 약점이 잡혀서 교육감직을 유지하더라도 우파의 포로가 돼 끌려 다니는 처지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궤 교육감에게 무비판적으로 의존할수록 교육 개혁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궤 교육감 사건 자체가 소수 명망가를 중심으로 운동을 벌이고 이들이 운동을 좌지우지하는 위로부터 개혁주의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다. 소수 명망가들에게 의존하는 태도가 그들이 운동의 규율과 전통을 쉽게 무시하고 운동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파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려면 궤 교육감에 대해 무비판적이어서는 안 되고, 개혁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이현주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서울 도심 한복판을 누빈 4차 희망버스

## ‘희망버스’ 운동 중간 평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다

조명지

최근 한진중공업 노조 지도부 선거에서 정투위(정리해고철폐투쟁위원회) 후보가 투쟁을 배신했던 채길용 전 지회장을 누르고 통과한 승리를 거뒀다! 차해도 신인 집행부는 과반의 지지를 얻어 당선했고, 채길용의 성적은 피조죄됐다.

이것은 희망버스가 장기투쟁과 혹독한 탄압으로 지쳐 있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줬다는 것을 보여 줬다. 차해도 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희망버스가 우리 조합원들에게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나 신념 같은 것을 갖게 했습니다.”

선거 직전 조남호는 야당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권고안이 정리해고 철회를 담고 있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웠지만, 적어도 조남호가 3년 뒤 복직을 고민해 보겠다는 데서 뒤로 밀렸다는 점은 명백하다. 조남호는 권고안을 수용하며 물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힘으로 밀어붙이면 통한다”는 나쁜 선례”라고 우려한다.

김진숙 지도위원도 말했듯이,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데 “희망버스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다.” “물대포 쏘 거, 연행될 거 일면서요 … 산을 둘러 댄 시간을 걸어서 열 걸 한 번 보겠다고” 온 사람들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물론, 아직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투쟁은 끝까지 않았지만, 전국적 정치투쟁으로 발전한 이 운동은 의미있는 성과들을 만들어 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 수만 명이 참가한 희망버스는 “정리해고 철회하라”는 김진숙 동지와 85호 크레인의 연대 호소에 대한 응답이었다.

기후 투쟁과 비정규직 1만 인 선언 등 연대 운동을 건설해 온 ‘비없세’(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네트워크) 활동가들은 경제 위기 고통에 신음하는 수많은 이들의 분노와 연대의 갈망을 잘 대변했다.

“IMF 이후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질려 나간 우리 이웃들이 수백만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삶의 바탕으로 물려 9백만 비정규직 시대가 되었습니다. 김진숙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발레오공조코리아 노동자들은, 롯데마트 노동자들은, 재능교육 비정규직들은 그런 이 시대의 절망에 맞서고 있습니다. … 우리 모두, 우리 시대 전체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희망버스를 타러 가요”, 송경동)

이것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불안정한 삶과 부정의한 사회에 불만을 쌓아가던 청년·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그래서 희망버스는 사람들이 더는 연대하고 투쟁하려 하지 않는다는 주장들을 정면 반박했다.

공감

희망버스는 노동자 투쟁에 폭넓은 연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줬는데, 탄압적인 재벌과 고용불리는 노동 대중 사이의 양극화 심화가 수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다. 주주들에게 1백74억 원의 배당금을 나눠주고 지난 10년간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조남호가 85호 크레인의 절규를 외면하는 모습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오죽 했으면, 한나라당과 조중동조차 조남호를 꾸짖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

희망버스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하고



김진숙 “희망버스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냈다”

외쳤다. 그리고 이것은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보여 주듯, 번번한 복지도 없고 고용 불안이 심각한 사회에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친민주당 개혁주의자들은 이 구호가 “너무 나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시장 경제에서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고 했고, 그래서 희망버스가 “제왕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조차 조남호가 영업 이익을 쌓아 놓고도 노동자들을 해고했다고 비판하는 판에,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들은 체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타협을 추구하는 입장이 운동의 전진을 방해한다는 점을 보여 줬다.

한편, 민주노총·금속노조 지도부는 희망버스가 가계 온 기회를 더 적극 부여해야 했다.

재능지부 유영자 지부장은 “(희망버스에서) 자신감이 들었다. 이 마음 갖고 가

서 한참 동안 힘차게 투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지도부가 민주당을 중재자로 끌어들이려 하기보다 희망버스에 조합원들을 대거 조직했다면 이런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친민주당 개혁주의자들은 이 구호가 “너무 나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시장 경제에서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고 했고, 그래서 희망버스가 “제왕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조차 조남호가 영업 이익을 쌓아 놓고도 노동자들을 해고했다고 비판하는 판에,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들은 체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타협을 추구하는 입장이 운동의 전진을 방해한다는 점을 보여 줬다. 한편, 민주노총·금속노조 지도부는 희망버스가 가계 온 기회를 더 적극 부여해야 했다. 재능지부 유영자 지부장은 “(희망버스에서) 자신감이 들었다. 이 마음 갖고 가

### 새로운 청년 세대의 동참

‘김여진과 날라리 외부세력’으로 표상되는 청년들의 동참은 희망버스가 기존 연대 운동과 구분되는 점이다. 경제 위기 속에 치솟는 등록금과 청년 실업으로 대표되는 무한 경쟁 속에서 고통이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고 느낀 청년·학생 들은 노동 문제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적잖은 학생들과 네트워크화된 청년 모임들이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 서로 멀리 부산까지 연대 투쟁에 동참했다. 사실 노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지를 보내는 청년·학생 들이 늘고 있다는 징후는 대학 청소년 노동자 투쟁이나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지지 여론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1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한 청년은 참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홍익대 청소년 노동자 파업 당시 학생이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49일 동안 한 번도 농성장에 가보지 않아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야만 했던 것은, 만약 부산에 가지 않으면 더 큰 후회를 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도 추웠던 겨울에 왜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전후 상황이 뭘지 잘 몰라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갈갈갈 희망버스》, 후마니타스)

6월 11일 7백50여 명이 출발한 1차 희망버스 탑승자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이런 청년·학생 들이었다.

아랍혁명, 유럽의 저항, 월가 점거 운동에서도 청년·학생 들의 저항과 반란은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는 도화선이 되곤 했다. 따라서 좌파는 이런 ‘미래를 잃어버린 세대’들의 분노를 운동의 요구로 제시하고 개방적으로 이들을 운동에 동참시켜야 한다. 그리고 청년·학생 들과 조직된 노동자들이 서로의 투쟁을 고무하고, 연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열정과 자발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모으기

일부 사람들은 희망버스를 두고 “지도부 없는 운동”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 운동의 성공 요인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희망버스는 효과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힘을 모은 덕분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놀라운 열정과 자발적 참여가 희망버스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희망버스를 제안하고 헌신적으로 조직한 ‘기획단’이 없었다면, 자발성은 흩어질 수 있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경찰 탄압에 소환 거부 등으로 맞서는 등 기획단의 적절한 방향 제시야말로 희망버스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핵심 엔진이었다.

특히, 희망버스 기획단은 채길용 전 지회장이 배신적 합의를 했을 때, 운동을 꺼뜨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무효”를 선언하고, 2차 희망버스를 예정대로 강행할 것을 공표했다. 그리고 2차 희망버스는 1차 때보다 무려 10배나 되는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다.

물론 아권연대에 대한 태도, 조직 노동자 운동과의 관계 등에서 토론했고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여전하다.

그러나 희망버스 기획단과 운동은 자발성과 민주적 리더십이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투쟁을 전진시킬 필요도 있다.

### 99퍼센트의 요구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원한다

“정부가 뭐꾸 자본들의 배를 불러주는 동안, 우리 쌍용차 노동자 3천여 명이 길거리로 나왔었습니다. 36세의 젊은 동지가 흩어머니를 두고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3년간 열일곱 명의 아가운 목숨을 떠나 보냈습니다. 파노물이 쏟아집니다. 이 망할 놈의 자본 천국이 우리 동지들의 생명을 빨아먹고 있습니다.”(쌍용차지부 양형근 대외협력실장)

노동자들의 죽음과 삶이 1퍼센트 재벌·부자 들의 돈벌이를 위한 제물로 바쳐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 위기 심화는 더 끔찍한 고통이 다가왔다는 것을 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고통의 첫 희생양이 될 수 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직후에도 비정규직, 그중에서도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집중적인 타격을 입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해고자 박현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2005년경 노동부 통계로만 현대차 비정규직은 1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6천여 명 정도입니다. 많은 동지들이 해고된 것입니다.”

“사측은 몇 년간 최고 수익을 냈는데도 정작 필요한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불법파견 판정을 무시하고 외주화 등을 통해 방랑을 피할 길만 찾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불법”을 방조하고 부추기며 비정규직 확산에 앞장서 왔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이란 고작해야 불안정·저질의 일자리뿐이고, 지금도 정부는 “고용 유연성”이 근본 대책”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최근엔 아예 법을 뜯어고쳐 합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더 늘리겠다고 한다.

사내하청

안 그래도 사내하청은 제조업뿐 아니라, 공기업, 병원 등 전 분야에 광범하게 퍼져 ‘나쁜 일자리’의 상징이 됐다. 심지어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져야 할 공기업의 사내하청 활용률은 75.8퍼센트로, 민간기업(58퍼센트)보다도 높다.

이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름과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물가는 치솟는데 임금 인상률은 이것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가족이 나 어려운 형편에 자식 등록금 격정, 가족 치료비 걱정은 더 커졌다. 그런 데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자본의 이윤 논리 앞에 무참히 짓밟혔다.



청년 실업·불안정 노동은 가만 5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학생들.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은 계속 낮아져,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악 임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게다가 이 좌파파만 한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이들이 업노동자의 12퍼센트나 되고, 정부 부문에서조차 10만 명에 이른다.

병렬한 같은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런 고통에 맞서 저항하면 무자비하게 짓밟아 왔다. 지난해 25일간의 점거파업 이후 공장 출입도 가로막힌 채 생활고에 허덕이는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노조를 만들어 투쟁에 나선 대학·병원 청소년 노동자들은 노조 파괴 공작과 수천만 원 ‘벌금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보여 준 강력한 힘과 사회적 지지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일각에선 기업주·정부가 아니라 정규직에게 문제의 책임을 돌리는 주장이 있다.

예컨대, 사회다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파일을 나눌 때 힘 있는 존재(정규직)가 많이 때어 가면 나머지(비정규직)는 적게 가져간다”며 정규직의 임금·복지 양보를 촉구한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은 지난 수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늘어나고, 적잖은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투쟁에 소홀한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 정규직 양보론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파이에서 가장 큰 몫을 가져가는 것은 바로 기업주들이고, 지난 수년간 바로 이들의 몫이 커져 왔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 몫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퍼센트에서 지난해 52.5퍼센트까지 떨어졌고, 지난 3년간 정규직·비정규직 모두의 실질임금이 동반 하락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조차 자신의 임

금·노동조건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커졌던 것이다. 이것은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정규직 연대 투쟁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파이

사내하청 확산의 주범인 재벌들은 지난 몇 년간 사상 최고의 높은 수익을 구가해 왔다. 삼성·현대 등 재벌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수조 원씩 수익을 내면서도 최고 70퍼센트가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이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 위기의 고통을 표현하는 대명사가 됐고, 대중적 불만의 초점이 됐다. 〈한겨레〉가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 운동의 한국판 요구를 “비정규직 철폐”로 규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근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앞다퉈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 준다.

“비정규직 철폐” 요구는 ‘희망버스’에서도 주요 요구였고, 99퍼센트 저항 운동에도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차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희망버스의 종착점은 22일 서울 시청 광장이다. 우리 99퍼센트가 모여 저를 1퍼센트에 대항해 하나가 되자. 희망으로 세상을 점령하자.”(김소연 기흥전자 분회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전진 공동조직위원회’는 최근 비정규직 투쟁 대장정을 선언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희망버스’처럼 정치적 투쟁과 강력한 연대를 결합시켜야 하며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조직 노동조합들이 이런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런 대중행동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더 확대될 비정규 대책 논의에서도 운동의 요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박철



##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는 가능하다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문제다. 지난 수년간 노동조합운동 내 부문주의, 실리주의가 확산되면서 ‘정규직의 연대가 가능한가’ 하는 물음이 던져졌다.

그런데 최근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아름다운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 준 인상적인 사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지가 두 활동을 인터넷했다.

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자기 자식들이 취직하기 힘들다는 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정규직이 늘면 정규직에 대한 공격과 탄압으로 이어진다고 조합원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비정규직 다음의 타겟은 우리가 텔레니까요. 투쟁을 안 하고 멈추면, 자꾸자꾸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싸워야 조합원들이 바뀌고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강남성 현대차 전주 공장위원회 부의장  
“비정규직 공격은 정규직을 공격하는 것”

한진KDN노조 이호성 위원장  
“이기려고 비정규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규직이 월령을 압박해야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현안 문제나 고용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정이 쌓여 왔습니다.

특히 얼마 전엔 비정규직 해고자 동지들의 공장 출입을 막아선 사측에 맞서 함께 투쟁했습니다. 활동가 1백여 명이 꾸준히 연대했고, 조합원들을 동참시켰습니다. 가장 많을 때 1천 대오가 넘는 조합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전주 공장 정규직이 3천5백 명 정도 되니, 3분의 1이 참가한 것입니다. 모두들 함께 기뻐했죠.

우리는 조합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회에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취직하기도 힘이 듭니다. 조합원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님, 아유를

현 집행부가 당선한 이후로 우리는 전체 비정규직 중 우선 무기계약직 4백30여 명을 조합원으로 조직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함께해도 이기기 힘든 세상에, 노동자들끼리 분열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사측은 2백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정규직 임금을 20퍼센트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워낙 임금이 적어 액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20퍼센트 인상이라는 상징적인 수치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절대 그날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 민주당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안보다 낫다. 한나라당은 최근 파견법 개정안까지 제출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규모 축소, 정규직의 80퍼센트 수준까지 임금 인상, 비정규직 사유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약속했다.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하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말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이 요구해 온 것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진보전선의 요구 중 일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 여당·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다. 그러나 PTA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당의 뒤공무니만 쫓아가는

당태를 볼 수 있다. 전북 익산의 민주당 지자체는 지금 환경미화원 업무 위탁도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싸우느냐다. 파견법 폐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수 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위해서 1퍼센트를 무릎 꿇게 할 강력한 투쟁의 힘이 필요하다.

박성환



# 끝이 보이지 않는 유럽 위기

10월 23일 유럽연합 정상들이 한곳에 모여 유로존 위기를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대표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는 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비관적인 전망을 발표했다. “유로존이 긴급 상황을 관리할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유로존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략문제 연구소인 ‘스트랫포’는 한술 더 떠서 유로존에서 앞으로 발생할 시나리오를 이렇게 정리했다. “**독일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세 가지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받고, 유럽 은행시스템은 위기에 빠지고, 그리스는 디폴트할 것이다.**”

지금까지 유럽 정상들은 이런 파국적 전망이 실현되는 것을 간신히 피해 왔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안을 내놓기는 힘들다.

얼마 전까지 금융시장이 가장 걱정된 것은 그리스 디폴트, 즉 그리스가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의 우려는 유럽 은행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확장됐다. 이제 금융시장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다른 유로존 국가들을 노리기 시작했다. 유로존 금융 위기가 확산되면서 이 나라들에 가장 많은 돈을 대출한 집단인 유럽 은행들이 위협받고 있다.

유럽 은행들은 8백10억 유로 상당의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3천억 유로가 넘는 이탈리아 채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로존 정부들은 그리스 등의 디폴트를 막아 유럽 은행 체계가 붕괴하고 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유럽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일 것인가를 놓고 유럽 지배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크다. 심지어 긴밀한 동맹이자 유로존 위기 해결의 핵심 주체인 프랑스와 독일 정부조차 입장이 엇갈린다.

이들의 입장이 일치하는 부분은 구제금융 지원의 대가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해당국 노동계급과 민중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구제금융’이란 것이 고스란히 돈을 빌려 준 은행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감에도 말이다.

## 분열

이런 해결책의 문제는 이것이 상황을 호전시키는커녕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추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유로존 긴축 ‘실험’의 대상인 그리스는 그것을 가장 극명히 보여 주는 사례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의 자체 조사를 보면, 그리스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와 지출 삭감이 모두 실행되면 그리스 가구당 평균소득이 무려 14퍼센트나 줄어든다.

이것은 수요를 위축시키면서 그렇지 않아도 낮은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출 것이고, 그리스가 빚을 갚기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게다가, 그리스 노동자·민중은 이미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저명한 의학잡지 랜싯은 공공서비스 긴축과 실업으로 2009년부터 그리스 국민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자살률이 급등하면서 “그리스 비극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의 긴축 정책이 다른 결과를 낳을 거라 볼 이유는 없다.

가혹하고 황당한 긴축 정책에 맞서 유럽 노동자는 투쟁을 벌여 왔고, 특히 그리스 노동자·민중은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리스 정부는 10월 20일 공공부문 노동자 3만 명 추가 해고를 포함해 추가 긴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10월 19일과 20일에 공공부문과 민간 노총이 모두 이에 항의해 48시간 총파업을 벌일 것이다.

격렬한 투쟁 과정에서 그리스 노동자들은 노조 관료들이 정해 놓은 틀을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갈수록 격화되는 대중 투쟁의 압력 앞에 집권 정당의 ‘단결’에도 점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번에도 그리스 정부는 의원들에 대한 공갈 협박으로 간신히 긴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집권당 내에도 별로 없다.

10월 15일 전 세계적 행동은 그리스 투쟁의 울바름을 입증하는 것이었고 이들의 자신감을 더 높였다. 이제 투쟁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일만 남았다.

김용욱



10월 19일 시작된 그리스의 48시간 총파업 1퍼센트의 고통 전가 시도에 굴복하지 않는 99퍼센트의 투쟁

## 물가가 아니라 임금을 올려라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3.4퍼센트로 떨어졌지만 물가는 9월까지 4.5퍼센트나 치솟았다.

특히 높은 환율 때문에 수입품 가격은 14퍼센트나 올랐다. 이 때문에 기름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쌀·유유·밀가루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도 대폭 오를 예정이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부산시는 지하철 요금을 11퍼센트, 경기도도 좌석버스 요금을 20퍼센트 올리기로 했다. 정부도 물·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며 물가 인상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이런 물가 인상 때문에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심하다. 전체 노동자 실질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3.9퍼센트나 깎였고, 이 중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7.6퍼센트나 줄었다.(올해 7월 현재)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조사를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실질임금 하락 속도는 국가 파산을 선언했던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많은 노동자들은 숨막히는 식료품비·교육비·전세비 상승을 겪으며 ‘적자 인생’을 살아간



서울유유는 최근 우유값을 9.5퍼센트나 올렸다.

다.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한 달 내내 일해도 매달 평균 16만 원씩 늘어나는 빚에 시달리고 있다. 살인적인 물가 인상 속에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출 대기업들의 이윤을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유지한 것은 정부 자신이다. 현대, 삼성 같은 대기업들은 “환율이 1백 원 오르면 4.3조 이익”이 생긴다며 남몰래 웃고 있다.

높은 환율 덕분에 현대차는 올해 3분기까지 순수익이 6조 원이 넘어 사상 최대였다.

게다가 기업들은 원자재 인상을 핑계로 가격을 올려 막대한 수익을 남기고 있다. 기름값을 담합해 올린 정유회사들은 올해 초 사상 최고 실적을 냈고, S-OIL은 올해 1분기 지난해의 무려 10배나 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식료품 가격 인상의 주범인 CJ제일제당도 지난해 영업 이익이 1백59퍼센트나 증가했다.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짜내 자신들의 배를 불러 온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중단하고, 고환율과 고물가 속에 돈을 번 기업들의 이윤을 회수해 노동자·민중을 위해 써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물가 인상 이상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

정선영

## 중국이 세계경제 위기의 구원투수가 될까?

미국 경제의 더블딕 가능성이 55퍼센트에 이르고 유럽은 위기에서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구원투수 구실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이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남유럽 일부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하면서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08년 위기 때 중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면서 위기를 일시 벗어날 수 있었던 한국 지배자들도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중국은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다. 최근 중국의 실물경제 지표들로 볼 때 향후 경제 전망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최근 여전히 중국 경제가 위축 상태임을 보여 주는 지표를 발표했다.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글로벌 소비 위축이 중국 제조업을 강타하고 있는데, 완구 제조업의 위기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 준다. 전 세계 수출용 완구의 75퍼센트를 생산하는 광둥성 둥관 등 주강삼각주 일대 완구 제조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빠져 있다.

2008년 경제 위기 때 주강삼각주 지역의 완구업체 8천여 곳 중 5천여 곳이 도산했으며, 이때 살아남은 3천여 업체도 올해 하반기에 상당수가 도산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중국의 경제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각각 7.5퍼센트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4퍼센트와 올해 2분기 9.5퍼센트와 비교해 대폭 하락하는 셈이다. 중국의 수출도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중국의 EU·미국 수출증가율이 각각 18.4퍼센트와 17.1퍼센트를 기록해 지난해(EU 수출은 31.7퍼센트, 미국은 28.3퍼센트)에 비해 크게 줄었다. 내년에도 중국의 EU·미국 수출 증가율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제 코가 석자

이처럼 중국 경제는 세계경제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시작과 더불어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국유상업은행 대출을 통해 중국 GDP의 40퍼센트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쳤다. 그런데 이제 그 효과는 사라지고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는 남유럽 국가들과 비슷하게 심각한 부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 3년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 때문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중 30퍼센트 정도(3조 1천억 위안)는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다. 2008년에 쏟아부은 돈이 지방정부 부채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기부양책의 또 다른 부작용은 인플레이다. 경기를 진작시키려고 통화를 늘렸는데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물가 상승만 낳았다. 2011년 7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올 상반기에 이미 5.4퍼센트를 넘어섰으며, 도매물가지수도 7퍼센트에 이른다. 올 상반기에 식료품 가격은 11.8퍼센트 상승했고, 주택 관련 가격도 6.3퍼센트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12.5 규획’을 발표하는 등 세계경제 위기에 대응해 내수를 확대하고자 했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국가통계국이 올 1월 조사한 소비자 신뢰지수는 99.9를 기록해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람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았으니 소비를 늘리기도 어렵다.

더욱이 최근 단기자금의 중국 이탈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으며, 위안화의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EU와 미국에 대해 중국 기업의 진출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갈등 요소들은 이른바 국제공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최근 열린 IMF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투자자유화공사 사장 가오시칭은 “**중국은 구제주가 아니다. 중국은 자신부터 구원해야 할 처지다**” 하고 말했다. 지금 중국은 세계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기 힘들다.

이정규 경시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99퍼센트’의 일부인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한다

이정원 이주 공동행동 기획위원

정부가 11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집중 단속하려 한다. 이번 단속은 다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불안정 속에 예고돼 꽤나 우려스럽다. 경제 위기 때마다 이주자들은 사람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속죄양이 돼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근 미국 세관은 일주일 만에 미등록 이주자 3천여 명을 ‘범죄경력’을 빌미로 체포해 추방했다.

2008년 경제 위기 때 이명박 정부도 ‘이주노동자 고임금’ 운운하며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 방안을 내놔고 정부 차원의 외국인범죄대책본부를 설치해 단속을 펼치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조장했다. 2008년 들어 추방된 외국인 수는 그 전년도에 비해 6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경제적 처지도 함께 악화됐다. 2007년 63억 원이던 체불임금 신고액이 2008년 들어 급격히 늘기 시작해 최근 몇 년은 매년 2백억 원을 훌쩍 넘어서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거의 1백억 원가량 체불임금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까지 포함하면 이 액수는 훨씬 늘어났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 사업주들이 이를 이용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 횡포와 폭력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 출입국 단속반의 횡포와 폭력이 극심해진다. 언제나 이 기간에 단속 때문에 크게 다치는 이주노동자들이 속출했고 심지어 사망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최근 마석의 한 공장에서는 단속반이 무단으로 쳐들어와 가스총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해 끌고 가는 사건이 있었다.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 이런 일이 전국에서 매일 일어난다.

이것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10월 7일, 모로코인 여성은 여수출입국사무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엄청난 분노와 절망감 때문에 5층에서 투신했다. 그녀는 전 재산을 털어 어렵게 마련한 가게를 남편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사소한 위반 사항을 빌미로 한 달 안에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연기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

지만, 당국의 답변은 “귀찮게 하면 보호소에 구금했다 강제출국 시키겠다”는 협박뿐이었다. 그녀의 투신 뒤에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녀와 남편의 출국을 연기해 주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외국인 체류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내쫓아 한국 노동자들의 처지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한국의 대기업들이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때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었고 고물가로 월급봉투는 더 얇아졌다.

사실 이주노동자 통제의 진짜 목적은 저임금의 운순한 노동력 수급 관리에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을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의 표적으로 내몰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99퍼센트’의 이익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필리핀 이주노동자 활동가 프랭크는 “우리 이주노동자도 99퍼센트 (일부)다”고 말했다. 이 말이 진실이다. 이주노동자들도 우리처럼 경제 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이고,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에 이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과 단결해 ‘1퍼센트’에 함께 맞서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아만적 단속에 반대하자.



정부와 자본가들은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는 그 불만이 이주자들을 향하게 하려고 마녀사냥을 한다.

## 라디오 토론에서 황당한 인종차별적 주장을 보기 좋게 반박하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국익을 위해 그 정도는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자유로운 임노동 관계’라는 자본주의 핵심 원리조차 사치라는 기가 막힌 판결이다.

이 판결 직후 KBS 1라디오 <KBS 열린토론>은 ‘외국인 노동자 이직횟수 제한 논란, 쟁점과 파장’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열었다. 이날 토론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장과 한 중소기업업체 대표, 경북대학교 채형복 교수, 그리고 필자가 참가했다.

기업주를 대표한 자들은 현재의 판결을 쌍수 들어 환영했다. 이 사건에서 이들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과 전혀 차이가

없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충분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직장마저 자유롭게 옮기게 해 주면 더 높은 임금을 쫓아 움직이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노동 ‘시장’

나는 이주노동자 임금은 정부 통계로도 한국인 대비 70퍼센트에 그친다고 반박했고,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직장을 옮기는 당연한 권리를 이주노동자들에게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반박했다. 채형복 교수도 국의 논리로 보편적인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업주측 패널들은 고용허가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는 말을 늘어

났고 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은 천국과 같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도 폈다.

이에 전화로 토론에 참여한 한 시민은 “한국은 노동 천국이 아니라 노동 지옥”이라며 반박했다. 나도 “이 열악한 작업장들이 천국이라면 왜 한국인들은 실업난 속에서 천국의 일자리를 마다하는가?” 하고 반문했고 “당신들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해서 값싸게 부려먹겠다는 심사라고 비난했다.

사측 패널들은 나중에는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등 죽는 소리를 해댔다. 대구에서 방송을 듣다 전화로 참여한 한 시민은 “한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속시

원하게 반박했다.

또 이 시민은 사측 패널이 이주노동자를 “개들”, “애들”이라 부른 것을 비판했고 결국 이 패널은 사과를 해야 했다. 이 토론회 내내 사측 패널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 - 게으르다, 신의가 없다, 병을 가지고 들어온다 등등 - 을 쏟아냈다. 쏟아내는 말들이 온통 거짓말과 편견 덩어리들이라 일일이 다 반박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채형복 교수도 사측 패널들이 이주노동자를 존엄성과 권리가 있는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는 이 토론에서 정부와 언론, 사장들이 늘어놓은 인종차별적 주장들을 끊임없이 반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 ‘착한 자본가’ 같은 것은 없다

지난주 컴퓨터 회사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언론은 그를 훌륭한 사업가라며 찬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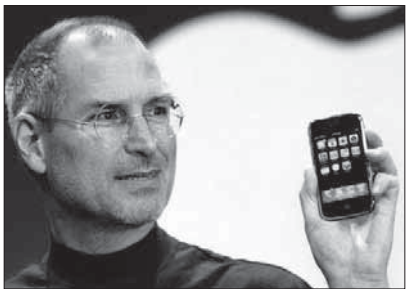
그 전주에 영국 노동당 당수 에드 밀리반드는 자신은 “반기업적”이지 않다고 애써 강조하면서도 “악탈적” 기업 행태를 따르 비판했다.

그러나 “악탈적” 경쟁이 바로 자본주의의 근간이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두 주요 계급으로, 즉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눈다.

기업주들은 노동자를 착취해서 돈을 번다. 이 말인즉,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를 일부 떼어 가져간 뒤 그것을 이윤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들은 ‘생산적’ 기업주(예를 들어 공장을 소유한 사람들)를 증권 중개인 같은 ‘비생산적’ 기업주와 구분한다.

그러나 그 어떤 기업주도 부를 생산하



아이폰을 만든 것은 잡스가 아니라 저임금 받는 중국 노동자였다.

지 않는다. 부를 생산하는 것은 노동자다. 금융자본을 포함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 전체는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 아래 뿔뿔 뿔쳐 있다.

잡스에 대한 칭찬은 대부분 그의 “선각자적”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잡스는 좋은 아이디어 덕분에 애플의 최고경영자였던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다.

애플은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돈을 벌었는데, 그 공장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했고 노동자들은 자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다.

잡스의 우선순위는, 다른 기업주들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최대한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는 모든 기업주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다. 경쟁이 기업주들로 하여금 노동자를 더 쥐어짜도록 몰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착취와 억압이 언제나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노동자들은 체제로부터 더 나은 처우를 쟁취하기도 한다.

영국 지배계급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호황기에 개혁을 내줄 여유가 있었다. 대중 투쟁은 그들에게 더 많은 양보를 강제했다.

이런 개혁들은 중요하다. 무상의료 같은 개혁들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한다. 혁명가들은 개혁을 사소한 것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기업주들이 언제나 같은 것도 아니다. 어떤 기업주들은 다른 기업주들보다 악독할 수도 있고 현재와 비교해 자본주의가 노동자에게 더 많은 것을 양보한 적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따뜻한’ 자본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혁명이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계급 투쟁이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일어난다고 묘사했다. 그러나 계급 투쟁은 언제나 존재한다.

지배자들은 ‘국익’ 운운하며 계급 분할을 가리려 애쓴다. 때때로 이것이 이치에 맞아 보이기도 한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키고자 임금 삭감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이익인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 기업주들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늘렸다. 기업주들은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일자리도 줄였다. 기업주들의 이익은 노동자들의 이익과 충돌한다.

기업주들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짧게 말해 대답은 ‘아니오’다.

이윤 추구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착취, 전쟁, 억압, 환경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들을 개혁으로 없앨 수는 없다. 이것들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다수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번역 차승일



# 아랍의 혁명적 상황은 어디로 나갈 것인가

아랍 혁명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콜린 바커**가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며 혁명이 부딪힐 문제와 이후 과제를 분석한다. 콜린 바커는 영국 사회주의자로 《21세기 사회주의》(다함께)의 저자이자, 《혁명의 현실성》(책갈피)의 공저자이다.

이집트와 아랍 각지에서 계속되는 혁명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무엇이 혁명적 상황을 낳는가?

러시아 혁명이 레닌은 두 가지 서로 충돌하는 조건들이 충족될 때 혁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착취자가 더는 옛 방식으로 지배할 수 없고, “하층 계급들이 더는 옛 방식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혁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사가 찰스 킬리는 ‘이중 권력’에 관한 레온 트로츠키의 설명에서 영감을 얻어 혁명적 상황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정부는 자신의 일상적 지배 기구에 대한 부분적 통제를 도전 세력에게 잃는다.

둘째, 상당수 국민이 도전자의 주장을 지지한다.

셋째, 정부는 도전자와 지지자들을 진압하지 못한다. 즉, 심각한 정치 위기가 발생해 경쟁 세력들 사이에 발생하는 투쟁을 통해 그것이 해결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조건이 지속되는 동안 혁명적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어떤 세력이 단일한 정치적 권력 중심을 재확립하면 혁명도 끝나는 것이다.

이런 포괄적 정의를 사용하면 대단히 다양한 결과를 낳을 많은 상황이 혁명적 위기 상황에 포함될 것이다. 어떤 상황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진정된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대다수 군사 쿠데타는 잠시라도 그런 ‘혁명적 상황’을 낳는다. 그러나 쿠데타가 좌파가 활동하기 적절한 공간을 창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여기서도 예외는 있다. 1917년 여름 코르닐로프 장군의 쿠데타 위협은 러시아 혁명을 왼쪽으로 급진화시켜 볼셰비키를 강화시켰다.

또, 쿠데타는 때때로 그 이상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예컨대, 1974년 4월 포르투갈에서는 옛 파시스트 정권을 전복시킨 군사 음모가 발생했고, 그것은 18개월간 지속된 혁명적 상황이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

## 의회

꼭 군부 때문이 아니더라도 인구 대다수가 혁명에 참가하지 못하는 혁명적 위기기도 있다.

1976~78년 사이 스페인에서 파시즘이 종식되는 과정에서는 사회당과 공산당이 참가한 ‘협정’이 맺어졌다. 이 협정의 목적은 파시즘 종식 과정에서 급진적 도전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1980년대 대다수 주요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도 군부 독재가 비슷한 방식으로 종식됐다. 이 협정들에는 군부 독재 아래 살인과 고문을 자행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989년 폴란드와 헝가리의 ‘공산주의’ 정권들은 야당 인사와 공산당 지도자들 사이의 ‘원탁 회의’를 통해 종식됐다. 노동자 파업과 시위가 한 구실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한 지식인은 헝가리에 의회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혁명을 ‘인론이 만들어 낸 사건’으로 규정했다. 새 정부는 신자유주의 시장 개혁과 사유화를 신속하게 진행했고, 많은 옛 공산당 관리들이 부유한 민간 자본가가 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투쟁이 매우 컸지만,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옛 백인 지배자



2011년 2월 이집트 혁명의 하루 이런 투쟁을 통해 대중은 급속히 발전한다.

들과 타협을 하고 지배자들의 범죄를 용서하고 특권을 보호했다.

ANC는 집권하고 2년 뒤부터 신자유주의를 수용했고 대다수 남아공 흑인들은 수십 년간 겪어 온 빈곤에서 계속 고통받아야 했다.

이런 혁명들은 자유주의, 사회당, 공산당 지도자, 중간계급 야당인사, 종교 지도자 혹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민중 운동에서 ‘일탈’한 것이었다. 그들은 혁명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 혁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옛 사회의 계급 질서는 보존됐다. 사회 계급 구조가 극적으로 변하는 사회 혁명의 가능성은 실현되지 못했다.

심지어 대중시위가 기존 정권들을 무너뜨린 1989년 동유럽과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독립적 노동계급 투쟁과 조직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수많은 노동자는 시장이 확산되면 자신이 바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주의는 더러운 말이 됐다.

그러나 20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겪은 다음에, 또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새로운 혁명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의 환상이 깨지고 흥미진진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 참가자들

혁명적 상황의 발생에서 그것의 궁극적 결과까지 가는 길은 직선이 아니다. 그 길에는 도약과 뒷걸음질, 진전과 후퇴가 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삶에서 최초로 역사를 만들기 위해 뛰어들었을 때 그런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우여곡절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사상, 새로운 조직 형태, 새로운 희망을 만들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2011년 2월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서처럼, 민중 혁명은 참가자들이 하나로 단결했다는 정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혁명도 그랬다.

혁명가 칼 마르크스는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을 “아름다운 혁명”이라고 불렀다. 1974년 4월 포르투갈 혁명은 “꽃들의 혁명”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런 혁명 첫 단계의 단결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민중 반란을 낳은 근본적인 원인들이 곧 사람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금 이집트에서 자본가, 자유주의자,

무슬림형제단 지도자 등은 반란을 종식시키려 한다. 그들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높은 실업률, 치솟는 식량가, 저임금, 사장들의 전횡은 여전히 그대로다.

대다수 사람들은 혁명적 상황의 발생을 축하하지만, 막상 그 뒤로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집단적 힘을 인식했지만 그를 통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트로츠키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린 혁명의 뼈는 아직 단단하지 않은’ 것이다.

혁명은 소수의 참가자로 시작된다. 1917년 페트로그라드 사람들이 차르를 몰아냈다. 그러나 러시아 나머지 지역은 아직 직접 혁명에 참가하지 않았다. 한 통계를 보면, 이집트에서도 인구의 25퍼센트가 호스니 무바라크를 몰아낸 행동에 참가했다. 그것은 ‘엄청난 소수’지만 여전히 소수다.

이집트 혁명은 대도시에서 시작됐고, 아직 소도시와 농촌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요구를 제기하고 싸우면서 혁명적 상황은 확산되고 깊어질 수 있다.

그것이 일어나는 한 가지 경로는 더 많은 경제적 요구가 제기되는 것이다.

혁명은 사회적 삶에 의문을 제기하고 투쟁하도록 만든다. 위대한 혁명이 로자 룩셈부르크는 정치적 요구와 경제적 요구가 서로 결합되고 서로를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인지 지적했다.

룩셈부르크는 파업과 토지 점거 등이 확산되는 것은 혁명적 과정이 깊어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은 새

로운 사람들이 자신을 조직하고 자신감을 갖는 기회를 제공한다.

옛 정부의 몰락 뒤에 나타난 새 정부는 옛 정부가 나뉘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

이집트에서 새 정부는 무바라크와 거리를 뒤야 했다. 그러나 군대, 대기업, 작업장과 국가 기구에 여전히 존재하는 ‘작은 무바라크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작은 무바라크들’은 옛 지배자와 단단하게 연결돼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도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 포르투갈에서 사람들은 이 과정을 ‘정화’라고 불렀다.

부패하고 잔인한 지배자와 관리자를 몰아내는 투쟁은 혁명 과정을 강화하면서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당연히 사장들의 사기는 더 떨어질 것이다. 계급들 사이에서 회노예락의 균형이 바뀌는 것이다.

## 동맹

혁명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빨리 배운다. ‘정상’ 조건에서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을 몇 주, 심지어는 며칠 사이에 배울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상황을 판단하는 법, 즉각적 감정보다 아니라 약점을 파악하는 법, 그리고 자신의 집단적 힘의 크기를 가늠하는 법을 새롭게 배운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배우지는 않는다. 트로츠키는 대중 운동이 “지속적으로 근사치를 찾는 방법”을 통해 발전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하고 다양한 동맹과 대변인들을 시험해 보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스스로도 변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대중 운동에 참가하면서 사회 변화와 해방을 주도할 잠재적 주체로서 자신의 힘을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집단적

으로 새롭게 깨닫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 노동자들은 ‘기본이 좋아지는’ 경험을 한다.

이번에는 사장들이 속았음을 한다.

우리가 사회 혁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노동자들은 아래로부터 새로운 기구를 건설하고 있는가? 노동자들이 공장과 거주지 위원회, 독립 노조, 모임, 협회, 총회 등을 건설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새로운 민중 권력 기관이 등장했는가?

카이로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와 미화원이나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한 것처럼 옛 신분과 특권 질서가 붕괴하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조직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새로운 국가 권력을 건설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대중 운동 내에는 늘 ‘너무 멀리 나가지 말자’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대중 운동 내에서 보수적 층이 형성되는 것이다. 운동 내에서는 옛 지배자들과 타협해 혁명을 ‘일탈’시키려는 시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이런 논쟁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좌파가 명확하고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다.

좌파들은 계속 발전하고 유동적인 다양한 사상적·실천적 투쟁의 우여곡절 속에서 운동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혁명적 상황이 반드시 성공적 혁명을 낳는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 역사는 패배로 점철돼 있다. 국내의 지배계급들은 언제나 우리 편을 약점을 이용하며, 부역자를 찾고, 운동의 흐름을 엉뚱한 쪽으로 바꾸려 한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권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 번 후퇴하고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인가?

## 군부의 이간질을 거부한 이집트 민중

9월 중순부터 시작된 노동자 파업 물결과 대규모 반군부 시위에 직면해 최근 이집트 군부는 콥트교도와 무슬림 사이

를 이간질해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10월 3일 콥트교도 20명이 이집트 군부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그러나 군부는 오히려 자신이 무장한 콥트교 폭도들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

면서 일부 보수적 무슬림들을 동원해 콥트교도들을 공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군부는 역풍을 맞았다. 군부 장갑차가 비무장한 콥트교도 시위대를 공격하는 동영상에 광범하게 유통되면서 사람들은 군부의 의도를 깨달았다. 이윽고 이집트 전역에서 콥트교도에 연대하는 시위가 터져 나왔고 무슬림 성직자들

이 콥트교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는 진풍경도 볼 수 있었다.

혁명 이후 탄생한 이집트 독립 노동조합 연합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이 “반혁명 세력이 종교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기고

# 비고츠키 교육학 —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교육

전보선 전교조 교사,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다소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새부터인가 협력교육이 새로운 유행으로 뜨고 있다. 전교조나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에서는 한참 전부터 ‘협력교육’을 이야기해 왔지만 최근엔 ‘배움의 공동체’등 새로운 교육담론, 진보교육감을 심지어 제도권에서도 ‘협력학습’을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 협력교육 담론의 유행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유럽교육위원회나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교육지표 관련 논의도 협력을 가장 중핵적인 지표로 설정하기 시작했다. 세계적 차원에서 협력교육 담론의 확산은 한국보다 더 먼저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협력교육 대세가 형성된 것은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에 대한 반발과 비판, 그리고 공생과 연대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이 함께 맞물리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는 협력을 강조하는 비고츠키 교육학의 이론적 공헌도 상당하다.

## 비고츠키 교육학의 부상

협력교육이 유행하면서 비고츠키 교육학 역시 함께 부상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2000년대 이후 문화역사주의라는 새로운 교육학사조를 형성하면서 신자유주의의 경쟁교육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협력의 교육담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비고츠키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으나 최근 대안적 교육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핀란드와 북구 교육의 기반이 비고츠키 교육학이고, 프레이리나 사토마나부 등도 비고츠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삼스런 관심과 조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고츠키 교육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경쟁교육과 대립되는 협력교육 패러다임이며 또 하나는 주지주의·경험주의라는 오래된 교육학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는 통합적 교육 패러다임이다.

비고츠키 교육학은 ‘협력’을 통한 ‘전면적 인간 발달’을 추구하며 인간 발달을 사회와 역사와 인간의 총체적 관계로 설명한다. 그리고 인간 발달을 ‘주체와 세계’, ‘이론과 실천’, ‘개념과 경험’, ‘일상과 과학’의 변증법적인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본다. 비고츠키 교육학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인간 발달을 총체적·역동적 과정으로 본다.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이 인간 발달에 사실상 무관심하거나 이론적으로는 양적 누적의 과정(학력, 학업성취도 등)으로 설명하는 것과 달리 비고츠키 교육학은 인간 발달을 교육의 중심문제라 놓고 다른 차원의 여러 과정(생물학적 계통발생의 과정, 역사문화적 과정, 개체 발생적 과정, 미소발생 과정)이 결합, 상호작용하는 총체적이고 역동적인 나선



한국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학생들을 사기 저하시키고 발달을 저해하는 경쟁 교육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형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둘째, 교수·학습을 통일된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 기존의 시각이 교수와 학습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서 학습자 중심주의나 교수 중심주의로 양분됐다면 비고츠키 교육학에서 교수와 학습은 한 과정의 두 측면으로 통일된다. 따라서 양자 간의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셋째, 협력을 통한 발달을 추구하며 협력이야말로 가장 효과적 발달 과정을 이룬다고 본다. 시장주의나 기존의 관점들이 경쟁을 인간 발달의 불가피한 원리로 한다면 비고츠키 교육학은 협력이 인간 발달의 중심 기제이자 조건임을 보여 준다. 인간의 고등정신기능 발달의 토대는 ‘사회적 관계’이며 문화역사적 발달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해 나간다.

넷째, 현재의 상황만이 아니라 발달 가능성을 중시한다.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이 모든 인간의 발달 가능성 대신 능력의 차이를 전제하고 제도교육을 이를 확인하는 장으로 위치시킨다면 비고츠키 교육학은 모든 인간의 발달 가능성에서 출발하고 교육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전면적 인간 발달을 추구한다.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은 인간 사이의 발달 가능성의 차이와 특정 기능의 발달을 전제로 한다. 반면 비고츠키에 따르면 인간의 발달은 정신기능 사이 관계의 구조적 변화다. 따라서 인간의 발달은 개별적 기능의 독립적 발달이 아니라 정신기능들이 연결되는 연관된 발달이며, 정신기능은 인간의 의지·정서와 연결된 총

|            |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                       | 비고츠키 교육학                                                 |
|------------|-----------------------------------|----------------------------------------------------------|
| 인간발달       | 양적 관념, 혹은 무관심                     | 발달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 교육의 중심문제                                 |
| 사회관        | 능력주의                              | 인간 발달의 문화역사적 토대                                          |
| 주요 기제      | 경쟁                                | 모방과 협력                                                   |
| 교육과정 구성 원리 | 지식의 위계 (학문 중심),<br>경험의 제공 (경험 중심) | 고등정신기능의 형성                                               |
| 교육과 발달     | 학습 = 발달 (산다이크),<br>발달 후 학습 (피아제)  | 교육(교수 학습)이 발달을 선도                                        |
| 교사관        | 관리인, 보조자, 전달자                     | 발달을 이끄는 선도적 협력자                                          |
| 학습자관       | 사회화의 대상, 독립적 학습자                  |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객관적 지식(과학적 개념)을 능동적으로 내재화함으로써 고등정신기능을 형성하는 주체 |
| 평가관        | 실제적 발달 수준<br>확인, 비교 (변별력 중심)      | 학습자의 발달에 대한 이해,<br>발달 가능성 중시, 교수학습의 일부                   |

자신의 방법론을 ‘구조적·기능적·발생적 연구’로 소개한다. 그리고 인간의 발달과정을 구조, 기능, 발생과정의 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통일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비고츠키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실질적 문제는 그 같은 철학, 방법론에 동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적으로 승화하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역사가 증명하듯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변증법적 유물론에 동의하는 것과 실제로 그에 입각해 세계와 현상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다.

##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는 민중의 교육학

신자유주의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생과 연대, 참된 민주주의, 협력적 창조와 방향을 지닌다는 점에서 비고츠키 교육학은 신자유주의 시대가 붕괴하고 있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학이라 할 수 있다. 비고츠키 교육학은 인간의 평등한 가치를 전제하면서 모든 사람의 발달과 주체적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본질적이며 계급적이다. 또한 과학적 설명과 실천을 지향한다. 그리고 핀란드 등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일정하게 현실화되고 있으며 PISA나 유럽교육위원회의 미래의 교육에 대한 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 관점과 내용, 학문적 체계성과 실천적 현실성 그리고 시대적 조건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비고츠키 교육학은 기본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실제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는 교육담론과 행위를 실현하는 것은 구체적 실천의 문제다. 그와 관련한 문제를 간략히 제기해 본다.

우선, ‘행자’ 비고츠키와 ‘덜’ 비고츠키의 구분이다. 다소 엉뚱하게도 비고츠키는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또 다른 교육학 사조의 원조로도 위치해 있다. 구성주의가 비고츠키의 내용을 일부 떼어 내 사회적 조건의 영향에 대한 뛰어난 설명력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구성주의는 ‘개별화 학습’·‘수준별 교육’을 수용하는 것으로 비고츠키 교육학의 관점과는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을 옹호하기도 한다. 왜곡의 결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고츠키는 신자유주의를 떠받치는 흐름과 극복하는 흐름에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에는 주로 ‘행자’ 비고츠키가 소개돼 왔고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하면서 비고츠키를 올바르게 복원시키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교육담론과 실천을 조직하는 문제는 지금의 문화역사적 조건과 교육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용과 대안, 행위를 만들어 가는 문제라는 것이다. 비고츠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점과 방향에서 구체적 이야기와 행위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변증법적 유물론의 올바른 적용일 것이다.

## “예술가도 착취하는 사회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상정 총학생회장을 만나서 최근 연세 자살 사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최근 5개월 동안 4명의 학생이 자살했습니다. 한예종 학생들의 경우 보통 10년에 한두 명 자살하곤 했었는데 벌써 올해에만 네 명째 안타까운 죽음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총학생회가 연 추도식에 1백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애도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곰곰히 생각해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슬픔의 공론장을 열고, 가능한 해법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교수협의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었고, 총학생회에서는 21일에 학생전체비상대체회의를 엽니다.

그런데 불만인 것은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학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추계예대가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것에서 보이듯이 취업률 같은 잣대로 예술대학을 평가하려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맞을까? 예술해서 밥 먹고 살 수 있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한 예술가는 소수고 다수는 그 밑에서 착취를 당하거나 아예 그보다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사회적 구조나 시스템이 문제인

겁니다.

그 때문에 5차 희망의 버스, 9월 29일 반값 등록금 집회에 계속 참가했습니다. 그 동안 사회문제에 대해 한예종 학생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조금 소극적이었지않나 생각하는데 좀 더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10월 15일 집회에도 많이 갔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나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많고, 이 문제가 예술대에 다니는 학

생들에게는 더 심각합니다. [정부는] 이런 시스템과 구조를 해결지 못하면서 더 혼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무슨 산업처럼 A라는 인물이 들어가면 B라는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취업률로 학교 평가하고, 이런 성과주의가 문제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조성민



#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0월 31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 세종호텔

# “구조조정 저지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부패하고 탐욕스런 세종 재단에 맞서 싸우는 노동조합 활동가들

10월 7일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상급 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변경했다. 조합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과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싸워 이기겠다는 열망을 보여 준 것이다.

사측이 새로 만든 노조로 간 노동자들조차 관심과 지지를 보이지,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노조 홍보 활동에 나갈 거면 차라리 병가를 내고 나오지 말라”는 협박도 일삼고 있다. 직원 식당에 투표소 설치를 막고, 노조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도 중단했다.

사측은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적정인원 충원’, ‘1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합의를 했나?” 하며 시치미를 떼고 있다. 대표이사 면담도 거부했다.

지난 2년간 30여 명이 일터를 떠났지만 인력충원은 없었다. 가뜰이나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 혹사시켜 지난해 당기순이익만 11억 원을 거뒀다.

세종호텔은 세종대 재단 소유다. 사측의 강공 드라이브는 구재단 완전 복귀를

위한 수순이다. 세종대 재단 전 이사장 주명건은 부패사학의 전형이다. 그는 인건비 횡령 등을 저지르다 1988년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1990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장인의 도움으로 학내 시위를 초강경 진압하며 전교생을 유급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세종대 이사로 복귀했다. 이후 주명건의 행적은 교비로 부동산 투기, 공사비 과다 산정, 교수 채용 부정, 업무추진비 등 각종 비용 부당집행, 이사회 회의록 조작, 학생·교수 탄압 등 사학재단 비리의 백화점이었다.

## 복마전

결국 그는 2004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1백58건의 잘못을 지적받고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당시 노무현 정부의 교육부는 경징계만 내린 채 7명의 임시이사 중 4명을 주명건이 추천한 인물로 배정하면서 주명건 복귀의 발판을 마련해 줬다.

정권이 바뀐 뒤 주명건은 세종대 재단의 정이사로 복귀하려 했지만, 비리가 워낙 심해 이사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7월에 취임한 세종호텔 회장직은 재단 재장악의 발판인 셈이고, 구조조정과 노조 탄압에 숨겨진 속셈은 비리재단 복귀에 반대하는 민주노조 죽이기인 것이다.

주명건은 세종호텔로 돌아온 뒤에도 계열사에서 편법으로 연간 14억 원을 급여로 받아 챙기고, 세종호텔에서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영수증을 판공비로 처리하는 등 복마전을 만들고 있다. 노동자들이 번 이윤도, 학생들의 등록금도 ‘내 돈’으로 여기는 것은 주명건의 오랜 버릇이다.

세종노조는 수년 동안 노동조건 악화 시도를 저지해 왔고, 주명건의 복귀도 반대해 왔다. 세종노조는 이번에도 저들의 시도를 막아낼 것이다.

민주노총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최선의 선택이자 최상의 결정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며 세종호텔 앞 대규모 집회를 약속했다. 지역의 진보 단체들, 세종대 재단 산하 구성원들도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더 많은 연대와 응원이 필요하다.

이재환·허윤석

##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

# 떨렸지만 성공적이었던 나의 교원평가 거부 행동

2학기가 되자 학교에서 교원평가 계획이 나왔다. 신규 교사인 나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교원평가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모든 학급을 전산실로 이동시켜 학생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나에게도 두 학급을 데리고 전산실로 이동해야 하는 업무가 주어졌다.

나는 먼저 내가 속한 전교조 분회장 선생님을 뵈고 학생만족도 조사에 대해 상의했다. 그리고 동료평가뿐 아니라 학생만족도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학생들을 전산실로 데려가지 않고 수업을 했다. 수업한 이후에 전교직원에게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이유와 함께 동료평가까지 거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매우 떨렸다. 전교조 조합원에게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동료 교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왕따가 될지도 몰라’ 하는 마음에 흔들렸다. 그러나 교원평가가 아무런 저항 없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도 싫었다.

용기를 내 행동했을 때, 효과는 예상과 매우 달랐다. 선배 교사들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특히 비조합원 선생님들의 응원에 큰 감명을 받았다. ‘용기있는 행동이었다’, ‘지지한다’, ‘무슨 일이 생겨도 굳건히 싸워 나가라’ 등 복도를 지나다니면서까지 인사를 받았다.

물론 항의도 받았다. 학생만족도 조사를 담당한 교사들은 하루 종일 전산실에서 초과 근무를 했고, 일부 교사들은 보강수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교사들도 학교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교사는 신규 교사가 교원평가 반대 메시지를 보낸 것이 불쾌하다고 했다고 한다.

## 용기있는

이번 경험을 통해, 불만은 많지만 행동에 나설 자신감이 없을 때 먼저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저항하는 것이 전교조 조합원의 구실이라는 점을 배웠다. 또 분회에서 사전에 동료평가 거부에 대해 논의했고, 업무 부서에서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용기있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다. 작지만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배울 수 있었다.

동료평가 반대운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려면 결의된 교사들이 선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회·지부·본조 차원에서 선동하고 조직하고, 투쟁 사례를 모아 서로의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 또 전교조 본조는 투쟁을 통해 학교가 교원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전북지부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실천을 고민해야 한다. 다가오는 11월 13일 교사대회와 노동자대회가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행동의 초점이 되게 하자.

김연오 전교조 교사



교사들이 노조와 함께 투쟁을 벌이는 모습

## 삼화고속

# 파업 유지·확대가 승리의 관전이다

삼화고속 노동자들이 열흘 넘게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파업으로 서울-인천 간 광역노선을 거의 멈추다시피했다.

삼화고속 노조는 지난 7월 사흘간 전면파업으로 단체 교섭권을 쟁취했다. 그러나 사측은 뻔뻔하게도 약속한 교섭이 열 차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직장폐쇄를 하고 노조 사무실을 단수·단전했다.

삼화고속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노조의 애초 요구는 4천7백 원밖에 되지 않는 시급을 5천7백 원으로 인상해 줄 것과, 노동시간을 18시간으로 줄여달라는 것이었다. 삼화고속 노동자들은 하루 21시간 가까이 운전대를 붙잡고도, 인천의 다른 시내버스 노동자들에 견줘 50만 원이나 적은 임금을 받아 왔다.

사측은 적자 핑계를 대며 요금 인상 없는 임금 인상도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삼화고속은 지난 10년 동안 1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수억 원에서



10월 10일 파업 출정식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남겨 왔다. 작년에는 대표이사의 50억 원대 고급 빌라 매입설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런 사측이 올해는 48억 적자라며 최근 내놓은 감사보고서에는 국가 보조금 항목이 삭제돼 있는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화고속은 매해 인천시에게 지원금 70억 원을 받고 있다. 또한 서울-인천

간 삼화고속 버스요금은 2천2백 원으로 다른 경기지역보다 5백 원이 더 많다. 나대진 지회장은 “시민의 발인 교통수단이 사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70억 원이라는 국민혈세를 삼화고속에 지원해 주면서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손을 놓고 있는 인천시”를 비판했다.

열흘이 넘도록 조합원 거의 대부분이 파업에 열의있게 참가하고 있다. 차고지 7군데에서 파업 농성도 계속하고 있다. 올해 들어 사측에 맞서 민주노조를 세운 경험은 조합원들에게 자신감을 줬다. 공공운노조 인천본부, 인천 지역의 진보 정당·시민사회단체, 투쟁 작업장 노동자들의 연대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노조가 애초의 요구에서 임금 인상율을 일부 수정하면서 다시 교섭이 재개됐지만, 사측은 여전히 임금 3.5퍼센트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매일수룩 강력한 파업 유지와 확대, 그리고 연대 투쟁만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은하

## 인천대

# 학생들이 법인화 추진에 제동을 걸다

인천대 학생들이 법인화 추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10월 12~13일 총학생회가 실시한 총투표에 학생 55.5퍼센트가 참가해, 그중 67.32퍼센트가 법인화를 유보하자는 데 표를 던졌다.

지금 인천대 학생들은 턱없이 부족한 공간, 기약 없는 건물 신축, 차일피일 미뤄지는 지원금, 전공 교과를 가르칠 교수조차 부족한 상황에 고통받고 있다. 지금까지 인천시와 인천대 당국은 ‘법인화가 되면 학교가 발전하고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놨지만, 학생들은 학교가 퍼트린 장밋빛 환상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실제로 법인화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와 인천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 재정지원은 더 줄어들게 생겼고, 총장직선제 폐지 등으로 민주주의도 크게 후퇴할 것이다.

총학생회는 법인화를 유보하고 몇 가지 전제조건(안정적 재정 지원, 민주적 대학 운영 등)을 먼저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총학생회의 요구를 지지하며 투쟁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총학생회가 법인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 진정으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법인화 자체가 철회되어야 한다.

법인화의 목적은 자본의 입맛에 맞게 학교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수익성을 위해 학생·교수·직원 들을 공격하는 법인화의 본질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인화를 반대하고 ‘진짜 국립대’를 요구하면서 투쟁을 건설하고, 전국적인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

김동은 인천대학교 학생



# 독자토론광장

Letter@left21.com

10월 31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 우파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지난 9월 29일 있었던 전국대학생총회는 올해 계속돼 온 전국적인 등록금 투쟁의 연장이었다. 인하대에서도 학생총회, 본관점거, 1만인 대회 등 학생들의 투쟁이 있었다. 전국 대학생총회를 앞두고는 총회 참가를 안건으로 총투표가 있었다. 마감시간이 1시간 연장되기는 했지만,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해 80퍼센트가 넘는 찬성표를 얻었다. 압도적인 학생들이 9월 29일 집회 참가를 지지한 것이다.

그런데 총투표 마감 시간 연장과, 9·29 전국 대학생 총회가 ‘반정부 투쟁’이라는 것을 문제 삼는 글들이 온라인게시판에 올라오고, 대자보가 붙었다. 나는 총회 참가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참가



9·29 전국대학생총회

를 호소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그런데 얼마 후 한 학생이 인터넷에 익명으로 총학생회와 나를 국정원에 신고하는 모습을 캡처

해서 올렸다. ‘반정부 투쟁’에 같이 가자고 한 것 때문에 ‘좌익 사범’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이는 ‘운동권=빨갱이=간첩’이라는 우익들의 왜곡된 논리를 되풀이 하면서 진보적인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다. “등록금 투쟁은 지지하지만 반정부 투쟁은 반대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국가 탄압 요청’이라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소수 정치인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들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가로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과 정치적인 궤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다.

신고당한 사실을 안 후, 내가 ‘정부 비탄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대자보를 붙였더니, 여러 명이 나를 지지한다며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국정원에 좌익사범을 신고했다며 ‘ㅇㅇ’이라는 익명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협박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소외와 차별, 억압과 착취에 대한 저항을 호소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오선희 인하대 학생

## 목원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 목원대 학생이 광화문 광장 앞에서 등록금 인하 서명 및 요구수렴을 위한 서명운동조차 불허하는 학교 측에 항의해 ‘1만 배 후 분신자살’하겠다고 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런 시위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는 ‘부실대학’ 퇴출 정책이 있다.

목원대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학교 당국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교수와 직원 전원에게 총급여액의 ‘5퍼센트 기부운동’을 요구하고, 교수의 논문실적을 올리게 했다. 학생들이 10인 이상의 집회를 개최하려면 학교측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인터넷에 집회 관련 광고를 올리는 학생에게 전화를 하는 등 탄압했다.

현 총학생회는 반값 등록금 운동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학생들의 어려움에 무심했다. 이것이 목원대 학생이 소위 “극단적 시위”를 벌이게 된 계기였다.

처음에 목원대 당국은 이런 학생의 시위에 대해 “정신병원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그의 시위가 주목을 받으면서 결국 학교는 서명운동을 허가하기로 했다.

다행히 목원대 학생의 1인 시위는 끝났지만, 한예종 학생 4명이 자살하고,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물대포로 진압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운동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월가 점거 연대 운동에 참가해야 한다. 얼마 전 독일에서 대학생들의 투쟁 결과 ‘수업료’가 폐지된 바 있다.

김재원

##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KT 노동자들의 저항이 시작되다

최근 MBC <PD수첩>은 구조조정 이후 갑자기 노동자들의 죽음 이 끊이지 않고 있는 KT의 노동현실을 폭로했다.

KT 민영화 과정에서 국내의 투기자본의 이윤 보장과 고배당을 위해 3만여 명이 구조조정됐다.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노동강도 강화와 실적 압박은 점점 더 커졌고, 급기야 올해 들어 자살자 3명을 포함한 14명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 노동자는 장비 점검을 위해 출동했다가 연락이 두절된 후 시체로 발견됐다.

고인은 구조조정 이후 8명이 하던 업무를 2명이 맡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더구나 회사는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2인1조 작업을 혼자 수행하도록 했다. 유족

들은 이런 최악의 노동조건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 것에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는데도, 노골적인 친사용자 노조인 현 KT노조는 애도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은 채 외면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연말에 있을 노조선거에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민주노조 진영으로 모이는 것을 막고자 선거관련 규약을 개악하기까지 했다.

대의원대회에서 참관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입장을 봉쇄한 채 통과시킨 규약안은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선거기간 축소, 선거기탁금제 도입 등 한결같이 조합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중 압권은 통신매체(인터넷, 메일, 사내메신저

등)를 이용한 선거홍보를 금지한 것이었다.

‘KT민주동지회’가 반대성명을 통해 발표했듯이, 현 노조 집행부의 시도는 결국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개악 시도 자체가 조합원들의 불만과 열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이석재 회장 연임 저지, 어용노조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동지회 회원들의 릴레이 일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열망을 하나의 쏙점으로 모아낼 수 있는 민주파 활동가들의 더욱 힘찬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

이원준 KT 노동자

## 한예종 학생들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최근 다섯 달 새 무려 4명의 한예종 학생들이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취업 시험에 떨어지거나 부모와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우리 언니가 미대생이라 그런지 이 기사를 보자마자 정말 가슴이 아팠다.

최근에 우리 가족이 외식을 갔을 때였다. 엄마가 갑자기 언니의 남자친구 얘기를 꺼내더니, 돈도 많이 못 벌고 대학도 안 나와서 어떡하냐는 말을 했다.

그러자 언니가 결혼은 자신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할 것이라며 걱정 말라고 했다. 간혹 인터넷에서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들을 보며 정말 싫다고 생각했는데(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언니가 이런 말을 하니 충격이었다.

하지만 집에 왔을 때 언니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언니 방 침대 위에는 책이 한 권 있었는데 바로 <예술가로 살아남기>라는 책이었다.

그렇다.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살아

남기’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 문득 올해 초에 돈이 없어 몸이 아픈데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작고한 고 최고는 작가가 생각났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선 소수를 제외하고는 예술가가 순전히 예술 하나만을 가지고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살아남기’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먹고살기 각박한 사회다. 경제 위기로 인한 물가상승, 계속되는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이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한예종 학생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를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예술가가 될 우리 언니를 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항상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 예술 그 하나만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그런 세상을 위해 싸울 것이다. 투쟁!

송조은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 다함께 공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 웹사이트에 토론회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서울 중북부 공개 토론회

위기, 저항, 그리고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

연사: 전지윤 &lt;레포트21&gt; 편집자

일시: 10월 27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예뮬센터 807호  
(세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CGV건물 옆)

참가비: 2천 원

문의: 02-6338-2395

경기남부 공개 토론회

기후 변화와 자본주의 —  
시장이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연사: 김종환 &lt;다함께 활동가&gt;

일시: 10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민주노총 경기본부 중회의실  
(수원역 앞 수원세무서 방향 도보5분 경기간호학원 건물 옆 골든프라자 5층)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6663-0032

대학생다함께 마르크스주의 포럼

서울지역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공포와 혼돈의 세계경제, 탈출구는 있는가

연사: 강동훈 &lt;레포트21&gt; 경제 전문 기자

일시: 10월 26일 (수) 오후 7시

장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서관) 316b호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678-8630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west.atg@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2-6338-2395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ibforum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189-2 201호





1퍼센트를 위한

# 한미FTA 저지하자

장호중

미국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명박 정부는 10월 말까지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양대 자본가 정당이 4년 동안 추가협상에 재협상까지 관철시키는 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엉터리로 번역한 협상문의 비준을 서둘러 왔다.

주한 미군 성폭행 사건이 연달아 벌어진 직후에 미국에 간 이명박은 이에 대해선 꺾소리도 안 하고 오바마의 대선 사전선거운동원 노릇만 해주고, 한국에 돌아가면 꼭 한미FTA를 비준하겠다고 약속하고 왔다.

때마침 미국 정부가 낸 보고서는 한미FTA가 불평등한 '패주기' 협상이라는 사람들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돌려놨다.

위키리크스 폭로를 보도도 한국 정부 관료들이 누구 편에서 한미FTA 협상을 한 것인지 드러난다. “쌀은 지켰다”던 말은 거짓말이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이명박이 미국을 방문하는 대가로 이뤄진 일이었던 것이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현종은 다국적 거대 제약회사의 이익을 지키려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며 미국 측에 자랑했다.

## 더 많은 피와 사상자

그러나 한국과 미국 투자자 사이의 '이익 불균형'이라는 관점만 보면 친기업·반노동·반복지·반민주 협정인 한미FTA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 때문에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며 재재협상을 요구하지만 한미FTA의 '독소조항'들은 원래 협상문에 포함돼 있던 것들이다.

한미FTA 추진에 앞장선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은 2006년 2월 국정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낡은 일본형 경제시스템을 버리고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를 당시 <조선일보> 논설실장 송희영이 간략히 요약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끼리 더 많은 피해를 흘리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경쟁체제를 만드는 일 ... 진짜 혁명적이어서



10월 9일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 한미FTA 반대 투쟁은 99퍼센트를 위한 투쟁이다.

할 분야는 정부 부처...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며, 국내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한국 지배자들 사이에서는 한미FTA가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외부 충격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1998년

IMF 위기 당시 '충분히' 하지 못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 고용유연화, 비정규직화, 공공서비스 사유화와 가격 인상 등 — 을 한미FTA를 통해 하려는 것이다.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은 1퍼센트 기업주·부자들 위해 국민의 압도 다수인

노동자·농민·빈민 등을 희생시키는 잔인한 정책들이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가 교육·의료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확대하려고 노동법 개악을 추진한 것이나 이후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한층 더 확대·강화해 온

것은 모두 이런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FTA의 진정한 본질은 단순히 농업을 내주고 자동차 수출에서 이익을 얻겠다는 수준의 주고받기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재벌들이 '패주기'라는 비난까지 들으면서 한미FTA에 매달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협상을 통해 노동자·민중을 더욱 효과적으로 쥐어짜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 노동자들에게 한미FTA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균형' 같은 것은 없다. 설사 일부 부문에서 수출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한미FTA는 양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낮추고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복지를 후퇴시키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에게 피해가 된다. 반대로 기업주·부자들 들은 각종 세제 특혜와 규제 완화, 사유화로 커다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명박과 오바마가 말하는 '국익'이란 이들의 이익을 뜻하는 것일 뿐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에서는 그 뒤 9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가 4배 이상 늘고 수출도 2배 이상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7.9퍼센트 하락하고 실업률도 5.4퍼센트 증가했다. 미국계 초국적 유통업자들이 담합해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주식인 '포르티아' 값이 50퍼센트나 올랐다.

## 민주당은 또 막는 시늉만 할 것인가?

한미FTA 반대 진영이 한미FTA의 본질 — 양국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위한 친기업·반노동 협정 — 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민주당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이 '이명박식'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한 그 손을 뿌리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사실들을 볼 때 이들이 한미FTA에 일관되게 반대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미 한미FTA 비준안의 국회 외통위 상정을 방조했다.

게다가 외통위 민주당 간사 김동철은 “한나라당이 진정성 있게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한미FTA는 10월 17일의

외통위 끝장 토론회 뒤에 재논의한다”라는 합의서에 서명을 해 줬다. 이것은 민주당이 그 계급적 한계 때문에 소수 재벌·부자들의 이익과 그것을 위한 정책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래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한겨레>조차 그 속내가 뻔하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막다가 어쩔 수 없이 통과되는 모습을 다른 야당과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1~2년 동안 민주노동당 등의 지도자들이 이런 민주당과 '공조'하는 데 치중하면서 아래로부터의 투쟁 건설에 충분히 힘을 쏟지 못했다는 점이다.

민주당과의 '공조'에 매달리면서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제대로 폭로·비판하지도 못했다.

게다가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이전의 '한미FTA 폐기' 입장에서 민주당의 요구인 '재재협상'으로 후퇴했다. '어쨌든 이명박의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지만 한편에서 이는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신호를 보내는 효과를 냈다.

최근 외통위에서 한나라당 남경필이 '민주노동당의 당론은 그동안의 발언이나 정강·정책 등을 봤을 때 어떤 경우에도 한미FTA 반대 아니냐' 하며 대화 상대가 아니라는 식으로 무시하자,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아니다. 6월에 개정

된 강령을 보라' 하고 반발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태도는 기층의 운동을 약화시키고 민주당에 정치적 의존성을 높이는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민주노동당 등의 지도자들은 지금이라도 한미FTA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주당에 비판을 삼가지 말아야 한다. 의장석을 점거하던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든 '시늉'이 아니라 실제로 온몸을 던져 비준안을 막을 것을 민주당에 촉구하면서 강력한 원내 투쟁을 벌이고 원외 투쟁을 호소해야 한다.

내년 선거에서의 '야권연대'를 최우선시해 이런 비판과 투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 관련기사 2면

박석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 인터뷰

## “촛불을 부활시켜 한미FTA를 저지합시다”

10월 5일부터 대한문 앞에서 단식·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박석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를 인터뷰 했다.

한미FTA는 주권을 포기하는 협정입니다. 한미FTA가 한국 국내법에 저촉되면 한미FTA가 우선되는 거죠.

또 한국 사회의 매우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공공정

책, 사회정책, 복지정책 등을 써야하는데 한미FTA는 그런 정책을 쓰는 데 근본적인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복지 정책 사회 정책에 시비를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또 지금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한미FTA가 발의 되면 외환·금융

규제 정책을 쓰는 데 제약을 받게 되요. 그러면 경제파탄으로 갈 위험까지 있는 거지요.

이런 한미FTA는 꼭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등은 상당히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FTA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야권연대 없다. 비판을 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노동당도 좀 더 전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국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펼쳐 일어나야 합니다. 22일에 2차 '광장을 점거하라' 행사가 열리는데 너도나도 광장에 나와 촛불을 부활시켜야 한미FTA 저지의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정선영

